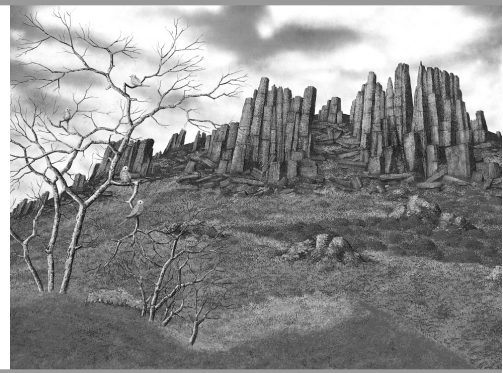


계간 **자** 201803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CONTENTS

표지이야기

이강하 작. 무등산의 봄, 2007, 290.9×181.8cm, Oil·Acrylic on canvas(이강하 화백 생애 마지막 작품)
전남 영암 출생.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동대학원 순수미술학과 졸업. 전라남도 미술전람회에서 여러번의 입선 및 특선, 제5회 한국미술문화대전 대상 등 수상경력이 있으며, 수 많은 초대전과 개인전을 개최했다. 작품은 청와대(백자와 청물, 20호, 2005) 외 2점, 헌법재판소(영산강변, 50호, 1987), 대한민국정부 통일관(통일로 가는 길, 100호, 1987) 등에 소장되어 있다. '양림동의 화가' 이강하는 지난 2008년 겨울 5년의 암투병 생활을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무등산의 별이 되었다. 올해 2018년 2월 작고 10주기에 가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남구 양림동에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2	'창'을 열며 젓가락과 포크	백수인
3	특집기획_ 민선 7기 문화정책의 방향 : 쟁점 및 과제 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환, 협치에서 시작하자 기초예술의 좌표는 어디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에 역사박물관을 짓자 문향의 문향다운 문학관을 갖자	김기곤 전고필 김광욱 노성태 이춘배
14	문화인 탐구생활 문화노마드, 빛과 길과 땅의 서사 - 이종범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서연정
17	기획연재 굽어보고 우러러 보는 '면양정'	임준성
20	문화진단 전라도 정도 1천년과 그 의미	김덕진
22	문화교류 우리가 찾아나선 사람·풍경·인권	김정희
28	문화현장 정글에도 법칙이 있듯, 문화창작자들을 위한 생존의 룰이 필요하다!	이정현
30	문화청년그림 청년과 청년, 청년과 지역, 청년과 사회를 잇는 플랫폼 - 광주청년센터the숲	문정은
32	문화톡톡 국제PEN은 어떤 단체인가 아직도 숙제 많은 '5·18 진상규명'	박신영 김 성
38	재단·회원 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창’을 열며

젓가락과 포크

백수인_재단 이사장, 조선대 교수



일상에서 세 끼 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도구인 손가락과 젓가락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가끔 가게 되는 양식당에서는 나이프와 포크가 나오는데, 조금 불편을 느끼게 된다. 역시 습관이 문화를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면서 동서양이 식생활 문화의 기본부터 다름을 실감한다.

동양에서는 두루 젓가락을 쓰는데 나라마다 그 사용 방법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밥상의 그릇과 사람의 입 사이의 거리를 젓가락이 왕복하며 음식을 나른다.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대개 밥그릇을 반찬이 있는 곳으로 가져간 다음 그곳에서 반찬을 그릇에 담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밥그릇을 입 가까이 가져가 먹는다. 특히 일본인들이 국수나 면을 먹을 때 그릇을 들어 입 가까이 대고 후루룩 먹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수를 먹을 때에도 그릇을 상 위에 놓고 젓가락으로만 집어 먹는다. 우리는 밥과 국은 주로 손가락을 사용하지만 반찬을 먹을 때는 젓가락을 사용한다. 또한 각 나라의 음식문화에 따라 젓가락의 길이도 다르다. 중국은 멀리 있는 요리를 집어야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고, 일본은 그릇을 입 가까이 대고 먹기 때문에 길이가 짧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 길이이다. 특히 비교적 무거운 ‘쇠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작년에 청주시에 개소된 “젓가락연구소”의 변광섭 책임연구원은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21세기 정

보화시대를 지배한다고 말했다.”며 “젓가락을 사용하면 손가락에 있는 30여개의 관절과 70여 개의 근육이 움직이며 두뇌 활동을 도와준다. 한국이 골프와 양궁, 사격 강국이 되고 반도체, 줄기세포, 복제기술 등 미세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젓가락 사용이 밑바탕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크는 여러 면에서 젓가락 사용처럼 두뇌나 세밀한 기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젓가락 문화 예찬론자들의 의견이다. 포크에 비해 나무젓가락은 20% 이상, 쇠 젓가락은 30% 이상 뇌가 더 활성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고도 있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젓가락은 지지치 않고 어머니가 밥을 한입 떠먹이는 것 같은 몸짓을 하는 반면, 창과 칼로 무장한 서양의 식사 방식에는 포식자의 몸짓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몽골국립역사박물관의 2층에는 고대유목국가 시절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옛 몽골 유목민들이 항상 지니고 다녔다는 여러 모양의 휴대용 주머니들이었다. 그 주머니에는 젓가락과 칼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 역시 몽골에도 젓가락 문화가 있구나.” 생각했다. 그 후 몽골 전통 음식점 몇 곳을 가봤는데, 매년 젓가락 대신 포크와 나이프가 나왔다. 몽골인 교수는 “오랜 동안의 러시아 문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순간 “문화식민주의”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쳐갔다. 

특집기획

민선 7기 문화정책의 방향 : 쟁점 및 과제

촛불혁명에 의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는 바야흐로 6·13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7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촛불의 정신이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다가오는 민선 7기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지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문화도시 광주를 지향하는 민선 7기 문화정책의 방향을 쟁점과 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얼마 남지 않는 6·13지방선거에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생산적인 문화담론이 형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 편집자 주

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환, 협치에서 시작하자 김기곤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기초예술의 좌표는 어디로? 전고필_ 대인예술시장 총감독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옥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광주에 역사박물관을 짓자 노성태_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문향의 문향다운 문학관을 갖자 이춘배_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특집기획_ 민선 7기 문화정책의 방향 : 쟁점 및 과제

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환, 협치에서 시작하자

김기곤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문화도시 광주’를 지향해 온 광주 지역사회는 문화정책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의 문화행정은 창의성과 민주주의를 거스르며 낡고 부패한 관료와 정치권력에 의해 많은 상처를 입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도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과제 중에는 문화정책의 혁신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행정의 파탄 상황을 새롭게 복원하고, 문화의 가치를 여러 영역에서 실질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민선 7기 지자체 운영은 시기적으로 중첩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우리사회가 이루어야 할 ‘문화적 전환’을 공동의 의무 주체가 되어 함께 실천해야 할 시기이다.

국가와 지역에서 각자 실천해야 할 문화정책이 있겠지만, 어느 때보다 상호 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2004년 이후 지속해 온 국가문화프로젝트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단계이다. 그만큼 상호 협력의 가치와 방식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광주 문화정책의 재구조화라는 차원에서 ‘협치’가 활성화되어야 할 두 가지 주요 영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협치이다. 2014년 11월 이후 ‘광주시-문화전당-전라남도 정례협의회’, 2015년 10월 이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콘텐츠 협력체계 구축 회의’ 등의 협력 기구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기관 간의 낮은 신뢰와 책임성, 그리고 협력을 강제할 구조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몇 차례의 회의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협치의 정신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 강화, 5대 문화권 사업과 문화전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단위별 협치의 제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광주시-광주시의회-문화전당-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지역 시민사회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와 달리, 협치에서 광주가 주도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광주시는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지만, 사실 적극적이진 못했다. ‘국가 주도 사업’, ‘문화전당과 추진단의 기피’ 등을 이유로

지역의 공간 구성은 지역을 삶의 근거로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광주시 차원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비전이 요구되는 것은 문화정책의 부재보다는 문화정책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상황이다. 문화전당 개관 3년째를 맞아 조성사업은 문화적 도시환경 구축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지역의 공간 구성은 지역을 삶의 근거로 살아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새 정부의 새로운 가치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분권의 흐름을 문화도시조성사업과 연계해 본다면, 광주시가 협치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정책 사안이나 사업을 단위로 해서 분야별 분권협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문화전당의 지역협력사업을 대상으로 광주 지역사회가 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주도성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도시 광주’를 위한 새로운 문화정책 비전의 마련이다. 2004년 문화도시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광주의 문화정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계획에 의해 대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진흥 등의 영역에서 관련 계획들이 수립되기도 했지만, 전문가와 연구 집단의 밑그림 성격이 강했다.

광주시 차원의 새로운 문화정책의 비전이 요구되는 것은 문화정책의 부재보다는 문화정책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지역문화정책의 영역은 문화예술진흥, 관광 및 문화산업 육성, 문화복지 등을 넘어 도시재생, 사회혁신, 문화교육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화정책이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수단이자 과정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분권과 민주주의, 도시와 혁신, 문화와 기술의 융합 등이 강조되는 새로운 문화적 지형을 반영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반영하는 광주시 차원의 새로운 문화정책 비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통적인 방식대로 도시계획과 문화계획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도시문화계획’을 통해 융복합하는 협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 속에서 문화주체, 문화공간, 문화경제, 문화행정 등의 영역별로 혁신의 과제와 세부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천안시가 ‘문화-도시-재생’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사업을 연계한 복합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볼 수 있다. 

특집기획_ 민선 7기 문화정책의 방향 : 쟁점 및 과제

기초예술의 좌표는 어디로?

— 예술인 백인보 프로젝트를 통해 바라본
광주의 문화정책 방향

전고필_ 대인예술시장 총감독



작금의 기초예술 붕괴 현상은 비단 광주만의 일은 아니다. 서울이라는 모든 것의 중심인 도시의 특성만 벗어나면 거의 전 지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처방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을 괴롭히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그에 상응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문화재단과 같은 기관은 기실 많지 않다. 이유는 무엇일까? 논자의 추론으로는 첫째, 업무에 치이고, 택배(이 판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내리꽂는 사업을 칭함)에 치여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재단의 업무 담당자나 상층부가 이런 상황과는 달리 샐러리맨이기 때문이며, 세 번째는 더 심각한 부분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도 재원이 없기 때문이며, 네 번째는 실무진에서 고민하고 제안을 내놓아도 윗선에서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탓이라 여겨진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인 백인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예술의 각 장르와 기획까지를 포함하여 백 명의 현장 인력을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는 용기를 발휘했다. 그 뒷배경에는 시 문화정책과의 진지한 현황 진단에 대한 필요성과 재단 내부자의 추진력이 바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논자 또한 그 연구의 한축에 들어가 15명의 청년 장년 기획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냉혹한 지역문화계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기획의 판에서 보여주었던 딜레마를 먼저 언급하자면, 광주의 모든 기획과 관련한 일들이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으로 쏠려 있음에 절망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이 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 재단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자기검열 때문이었다.

논자 또한 대인예술시장의 일을 하면서 가급적 시 정부와 불편한 일들은 피하거나 아예 처리를 해줌으로써 예약을 세우지 않으려 했던 일들이 떠오르곤 했다. 부끄럽지만 이 분야의 한축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엄중한 현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구태여 발뺌하고 싶지 않았다. 동변상련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다시 이번에는 비

광주시와 문화재단은 이제 투명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기존의 예술단체 중심의 구도로는 기초예술이나 기획분야에서는 꺾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처럼 나를 파고드는 이야기가 있었다. 모든 기획행사들이 기존 선배들 중심으로 편재되어 움직이고, 이제 스타트업 하는 이들은 인건비조차 받지 못하고 열정 페이로 명이 들며, 언제 호명할지 모르는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토로였다. 기획 현장의 파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과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청년센터 등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논자와 같은 구시대의 인물이 독점하고 간다는 것이었다. 부끄럽고 안타까움이 치밀어 오는 현장 인터뷰였다.

이번에는 장르 예술 분야를 짚어 보았다. 예술활동에 있어 가장 큰 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첫 번째로 꼽혔다. 생계형 일과 예술을 병행하는 것의 곤란함 그 앞에 뒀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창작공간의 마련 및 운영의 어려움이었다. 비싼 임대료와 장비료, 운영비는 예술활동에 족쇄가 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꼽았다. 여성으로 태어난 것은 절반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과 같다는 말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신진예술가들은 공연 및 창작에 대한 욕구와 열정이 있어도 진입통로의 장벽이 너무나 거대했다. 특히 이 지점에서 세대간의 심리적 불편함으로 인한 단절 현상은 저마다의 칸막이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지역 여건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보다 더 많은 의견이 있음에도 거두절미하고, 광주시와 문화재단은 이제 투명성을 가지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기존의 예술단체 중심의 구도로는 기초예술이나 기획분야에서는 꺾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신진세대를 줄 세우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미 기초 예술로 진입하는 후배 세대들이 없음으로서 입증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원금으로 겨우 생존하는 마당에서 기득권도 아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얼마나 속절없는 일인지 알지만 예방이자 문화중심도시 광주로서는 이 방법 말고는 어떤 대안도 강구되지 않는다.

광주 예술은 이제 곧 예술절벽의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리고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광주 문화 발전의 플랫폼으로서 더 이상 안락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많은 미디어 부분의 예산 배정이라는 업적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기본이 되는 정책수립에 있어 기초예술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고, 어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예술위원회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예술인 복지재단으로, 문화예술회관 연합회로 펀드 매니저가 되어 나서야 할 차례이다. 

특집기획_ 민선 7기 문화정책의 방향 : 쟁점 및 과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욱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한 필자 개인적 입장은 불분명하다. 긍정적 측면이든 부정적 측면이든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여 공유해보자는 뜻에서 글을 시작한다.

1.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한 다양한 평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여러모로 바뀌었다. 수탁기관이 바뀌었다는 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ACC인터내셔널프린지페스티벌이 기획되었다는 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점, 그리고 매주 열렸다는 점 등등. 하지만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여전히 똑같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에서 예술가를 도구나 소모품으로 활용한다는 점, 광주문화재단에서 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한 참여를 반강요한다는 점, 질적 성장은 도외시하고 양적 성장에만 집착한다는 점, ‘프린지’의 본질과 떨어진 프린지페스티벌이라는 점 등.

2.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한 긍정적 평가 : 모든 평가항목에 걸쳐 상승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 참가한 단체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설문에서 전항목이 고르게 상승하였다. 비록 2016년 데이터와 비교한 수치라 한계는 있지만 동일한 계층을 상대로 동일 질문을 통해 얻었다는 점에서 시사점과 의의는 충분하다.

가장 높게 상승한 항목은 ‘참여자나 단체에 대한 원활한 의견 수렴’인데, 2016년 59.3점에서 74.0점으로 14.7점이나 상승했다. 그리고 2016년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변화에 대해 질문한 항목에서는 80.0점이 나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도 많은 항목이 있었으나 한결같이 전년대비 상승으로 나타났다.

개최 첫 해에는 여러 가지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다. 다행히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자들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평가점수의 전년대비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아주 조금의 불편함은 남아있다. 필자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려고 다양하게 접촉해보았으나 일부가 직접적인 의견 표출을 거절했다. 올해부터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추진하는 기관이 변경되었는데, 기관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못내 찝찝하다.

콘텐츠의 질적 상태는 축제의 장기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사 기간에만 반짝하는 축제는 이벤트에 가까워 소모적일 뿐 아니라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3. 광주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한 부정적 평가 : 내부적 역량은 여전히 부실

프린지페스티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페스티벌의 내부적 역량 증진을 하는데 있어 전년에 비해 개선된 점이 없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프린지페스티벌의 상당부분은 공연단체로 채워지는데, 공연단체의 예술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플리마켓 등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양질의 콘텐츠가 양질의 축제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대의 질도 높이고, 엔지니어와 배우들을 위한 워크숍과 멘토링 제도 도입 등 질 높은 콘텐츠를 위해 할 것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 배분이나 인력 배치는 없었다.

다른 하나는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이다. 첫해에 많이 지적된 부분 중 하나가 개최주기에 관한 문제였다. 광주의 역량을 감안할 때 월 1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예산이 많아져서 그런지 격주에서 주 1회로 오히려 개최일수가 늘어났다. 만약 예산이 증가되었다면 개최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제는 격주 개최에서 매주 개최로 전환하는 결정 과정에서 광주의 예술적 역량에 관한 실태점검이 있었는지, 양적 증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검토나 의견수렴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실무진에서 혹은 결재라인에서 결정되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

콘텐츠의 질적 상태는 축제의 장기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사 기간에만 반짝하는 축제는 이벤트에 가까워 소모적일 뿐 아니라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축제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적 역량이 증가하는 생산적 축제가 진정한 의미의 축제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할 명분도 선다. 프린지페스티벌은 이 점에서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4. 더 나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위하여

어쨌든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3회째를 맞이하게 된다.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흐름상 참여자를 상대로 평가점수를 받게 된다면 근소하게라도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이유로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역시 여전히 개선될 것 같지 않다. 더 나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자는 많은 분들께 여쭙고 싶다.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어떻게 보십니까?”

특집기획_ 민선 7기 문화정책의 방향 : 쟁점 및 과제

광주에 역사박물관을 짓자

노성태_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민주·인권·평화를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있는 광주에 정말 부끄러운 것이 있다. 대부분의 도시에 다 있는 역사 박물관이 아직 광주에는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있고, 서울에는 서울 역사 박물관이, 부산에는 부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있다. 대구, 대전, 전주 뿐 아니라 군산, 고양, 원주, 충남, 강화도조차도 역사박물관이 있어 도시와 지역의 정체성을 정리하여 보존, 계승하고 있다.

광주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지만, 상무지구의 치평동 구석기 유적은 12만 5천 년 전부터 살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들의 후손과 후손들이 무등산을 등지고, 광주천을 가슴에 안고 살아오면서 남긴 삶의 흔적의 누적이 오늘 광주인들의 몸속에 DNA로 남아 있는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요, 문화원형이며 정체성이다. 이 공간에 살아 온 선배들이 남긴 대표적인 문화원형과 인물, 정신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청동기시대 용두동 송학산 자락의 광주인들은 탁자식 고인돌을 남긴다. 2천여 년 전 신창동 사람들은 수레를 탔으며 비단옷을 짜 입고, 약기 ‘슬’을 탄 멧쟁이 조상이었다. 삼한 시대 마한인들이 축조한 명화동·월계동 장교분은 일본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문화원형이다. 고려시대 광주인들은 광주공원에 성거사지 5층 석탑과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신흥동 5층 석탑 등을 남긴다. 조선시대에는 전국 최초로 칠석동의 부용정에서 향약을 시행하였고 고싸움놀이를 즐겼으며, 무등산자락에서 최고급 분청사기를 구워냈다.

뿐만 아니라 광주는 수많은 영웅들을 낳았다.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 수군을 창설하여 왜를 격퇴한 정지, ‘신비복위소’를 올려 시대정신을 실천한 박상, 무진군으로 강등된 광주를 광주목으로 승격시킨 이선제,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켰던 고경명과 김덕령, 정묘호란 당시 안주성을 지켜낸 전상의, 이황과 사단칠정논쟁을 벌인 기대승, 이괄의 난을 진압하고 1등공신이 된 정충신, 한말 부자의병장이 된 양진여와 양상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주도한 장재성과 장매성, 의열단 단원, 조선의용군의 일원으로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정율성, 해방 이후 최초의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른 최흥중, 청년 운동의 대부 박준, 5·18민주화운동의 주역인 박관현과 윤상원, 6월 항쟁의 불씨를 지핀 이한열 등, 무등산이 낳은 영웅은 그 숫자를 셀 수 없이 많다. 양림산에 묻힌 배유지, 오웬,

광주의 역사와 문화원형, 광주정신은 가정으로 말하면 가보(家寶)요, 국가로 말하면 국보(國寶)에 해당된다. 가보와 국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어떻게 교육시켜 보다 보편적인 미래가치를 창조할 것인지의 고민은 그래서 유효하다.

엘리자베스 웨핑 등 광주에 사랑을 남긴 외국인 선교사들도, 서창 면민들을 구제한 뱃사공 박호련도 무등산이 낳은 영웅들이었다. 임진왜란과 대한제국 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광주 의병도, 광주학생독립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촛불집회 당시 금남로로 몰려 든 학생과 시민들도 다 무등산이 품은 광주의 영웅들이 아닐 수 없다. 광주는 이들 영웅들에 의해 민주, 인권,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는 시대정신의 실천지가 되었고, 이들이 지켜낸 보편적 가치가 광주인들의 정체성이 되었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의 현장 금남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로 불린다.

광주의 역사와 문화원형, 광주정신은 가정으로 말하면 가보(家寶)요, 국가로 말하면 국보(國寶)에 해당된다. 가보와 국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어떻게 교육시켜 보다 보편적인 미래가치를 창조할 것인지의 고민은 그래서 유효하다. 기록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군사(郡史) 시사(市史), 도사(道史)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목요연하게 분류하여 역사도 문화원형도, 정신도, 인물도 다 같이 한 눈에 만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광주의 역사와 문화원형, 인물, 정체성을 보여주는 광주 역사박물관은 그래서 특정 유물만을 전시 보관하는 국립 광주박물관과 광주시립민속박물관과는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각 도에 역사박물관이 세워지고, 광주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다. 광주에 역사박물관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육성을 위해서도 그렇다. 전남대학교 등 지역의 대학에 역사를 가르치는 학과가 있지만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를 연구하는 교수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지역의 역사를 지키고 연구하는 지역사 전문가를 키워내는 일은 정말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의 역사박물관은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 다양한 장소가 논의될 수 있겠지만, 5·18표지석과 4·19추모비, 심남일의병장 순군비, 류동운열사기념비 등 광주정신을 함축하여 간직하고 있는 광주공원이 적격일 것 같다. 또한 광주공원 정상, 지금의 충혼탑 옆은 1963년부터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지어지기 전인 1984년까지 전남도립 광주박물관이 위치한 곳으로 광주 역사박물관의 옛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광주공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5대문화권 중 하나로 포함되어 광주 역사박물관의 적격지로 광주공원의 무진회관과 방공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덩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다. 광주공원에 광주 역사박물관이 들어서고, 주변 공원에는 중국의 비림(碑林)처럼 의로움의 삶을 살다간 무등산 영웅들의 어록비를 새긴 의림(義林)공원을 만든다면 금상첨화겠다. 

특집기획_ 민선 7기 문화정책의 방향 : 쟁점 및 과제

문향의, 문향다운 문학관을 갖자

이춘배_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드디어 문화도시 광주의 면모를 갖추게 될 문학관건립이 착수된다. 2018년도 예산에 가칭 '광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6천만 원이 계상된 것이다.

그렇게 어려웠던 숙원사업,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소중한 사업이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미 전국적으로 세워져 있는 많은 문학관, '그 중의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개념은 행동의 지침'으로 간주한 듀이의 개념도구설대로 적극적인 지침이 되고 결과를 검사, 수정해가려면 착수하기 전에 개념설정부터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역대표문인의 문학세계가 담겨져야 한다.

작가와 독자는 작품을 통해서 상상을 공유하게 되므로 각별한 교감이 형성되고, 감동이 컸던 문학작품은 그 울림이 그만큼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독자들은 바라고 있다.

명작을 낳은 작가의 생가나 집필실, 작품적 배경이 되었던 공간들을 작품과 함께 기념관이나 문학관으로 보존하는 것은 그러한 대중의 기억을 돕기 위함이다. 따라서 그런 시설은 작가의 고향이나 작가가 생활했던 바로 그 현장에 세워져야하는 당위성을 갖는다. 작품 속에서 나눈 독자들과의 공감의 삶이 오래도록 공유되고 그 가치를 유지 확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인의 기념관이나 문학관은 기념물이지 현존작가의 작업실이나 습작기를 벗어나지 않는 평범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시민들의 문학관이어야 한다.

삶을 일구어가기 바쁜 현대의 시민들은 생활에서 잠시라도 여유를 찾고 위안을 받고자 한다. 문학은 바로 이런 생활인들에게 나무그늘이 되어주고 잠시 쉴 수 있는 벤치가 되어주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유년의 추억을 불러주고, 소년기의 꿈을 반추시켜주고, 말미잘 촉수같이 예민한 사춘기의 감성에 자극을 주던 교과서 속의 문학작품에 대한 아련한 회상을 불러주는 곳이라면 찾아가고 싶은 곳이 될 것이다.

따라서 문학관은 문화의 섬이 아니라 시민들이 언제든지 함께 올라타서 문화의 강물 위를 떠내려가고 싶은 뗏목

광주의 문학관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문인협회는 문인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안하고, 콘텐츠 개발에 조언만 하여야 한다.

이 되어주어야 한다. 문학을 사랑하거나, 문학을 통해 삶의 위안을 받고자하는 시민들이 찾아들어 여유를 찾고, 문학을 지망하는 문학도들에게는 그 길을 안내하고 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시민들에게 친근한 사랑방이 되도록 문턱을 없애야 한다.

3. 문향 광주다운 문학관이어야 한다.

지방에 있는 문학관이라 해서 지역논리에 묶이게 되면 ‘지역만의 문학관’이 되고 말 것이다. 문향 광주에 걸맞게 한국문학을 망라하고, 그 가운데 지역문학의 특성을 응집시켜 보여줄 때 더 너른 콘셉트의 문학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상고시대 문학의 대표작(구지가, 정읍사 등) - 고려시대 문학작품(가시리, 청산별곡 등) - 조선 시대 가사 문학작품(정극인의 상춘곡, 백광홍의 관서별곡, 정철의 관동별곡 등) - 전환기의 문학작품(김억, 김소월, 김기림(조선대 교가 작사자), 조운, 김우진, 박용철, 김현승, 서정주 등) - 광주에서 꽃을 피운 현대문학 거장들 몇 분”으로 흐름을 전개해 놓으면 왜 이 지역이 한국문학의 중심에 서 있는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배움의 자리가 될 것이다. 단 현재 생존 작가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콘텐츠는 절대 피해야 할 것이다.

4. 지속가능한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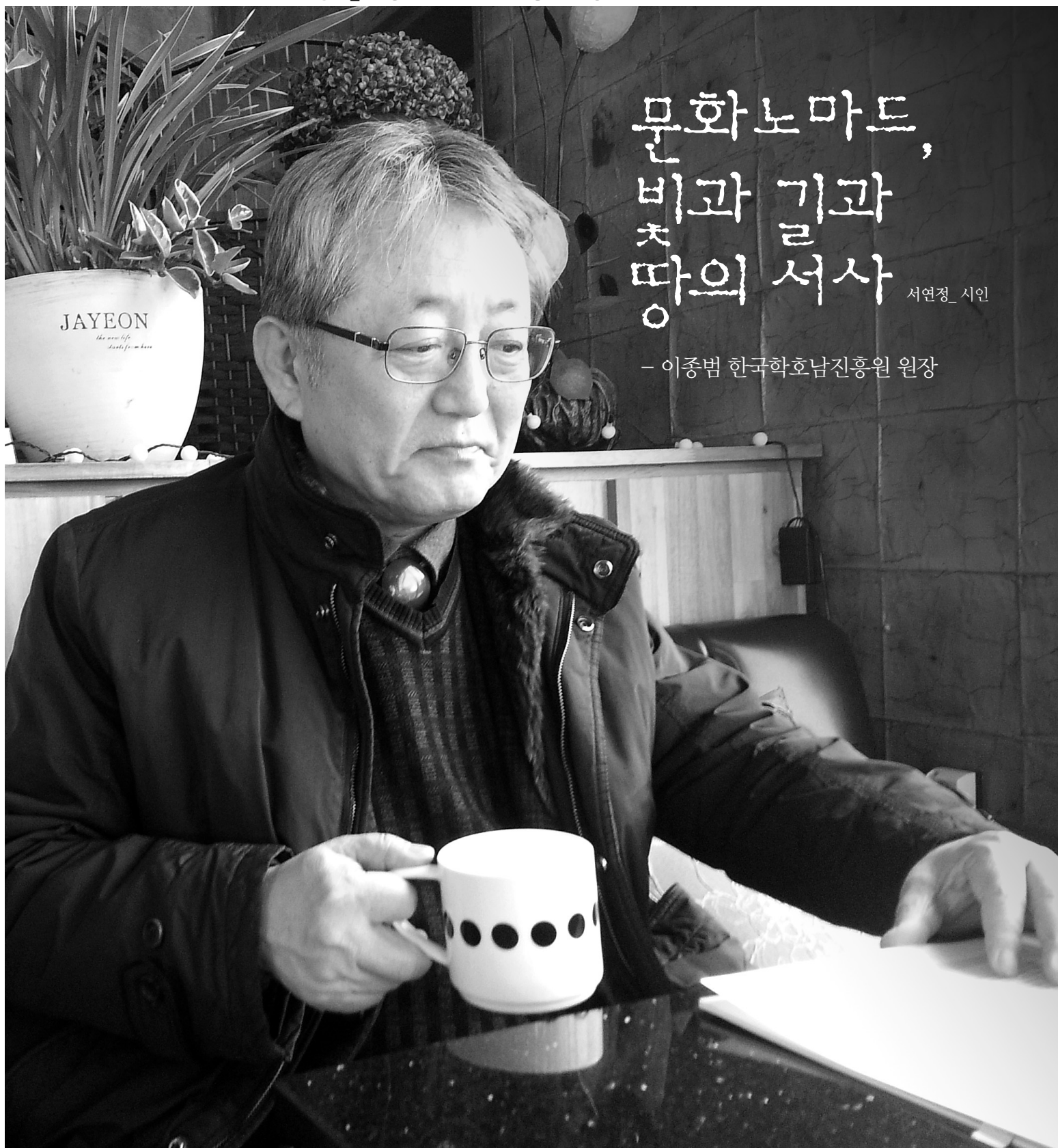
문학관을 시화전이나 강연회 등 단순한 행사 위주로 운영한다면 문학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지역문학의 의미를 짚어내면서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획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학을 전공한 학예사로서 문학관 운영에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을 전임으로 실무를 맡게 해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 도시의 문학관은 중요한 문화인프라로서 지역문화의 브랜드일 뿐 아니라 중요한 관광SOC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광주의 문학관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문인협회는 문인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안하고, 콘텐츠 개발에 조언만 하여야 한다.

문학관이 문인들만의 전유물이나 사랑방이 되면 일반 시민들로부터 소외당하여 고립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이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고 시민들과 함께 숨 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이미 세워진 공립 문학관 82개소 가운데 자립성을 확보한 문학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화인 탐구생활_ 이종범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호남지역에 있는 옛 선비의 문집, 고문서, 고서화, 고목판 등은 70여만 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산재한 민간 소장 자료를 수집·보존하고자 2017년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출범하였다.

초대 원장에 선임된 이종범 원장은 조선대학교에서 박물관장·고전연구원장·기초교육대학장 등을 역임하였고, 저술과 강의를 통해 열정적으로 호남정신사의 맥을 짚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문화택리지: 문화노마드의 길, 시공유예(時空游藝)의 꿈』(2007)에서 그가 제시한 국토의 역사문화독법은 '점·선·면= 빛과 길과 땅'이라는 틀이다. 정교함과 함께 자유로움, 사람 냄새가 나는 역사 이정표로 보인다.

그는 역사와 문화의 흔적, 장소 즉 점은 그 나뭇 가지가 나고 그러한 빛을 따라가면,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되듯이 길이 생기고, 선과 선이 묶이면 면이 되듯이 길과 길이 땅을 만든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전라남도 동북부의 역사문화유산을 풍경, 사찰, 정려, 사찰, 서원사우 등으로 분류하여 점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점들을 주제 혹은 소망에 따라 여섯 개의 길로 만들고, 네 구역에 따라 상징적인 땅을 집중 부각시켰다.

'인물·정신·지성 탐사'로 손꼽히는 기행 <백범의 전라도길: 잠행과 보은>은, 구한말 인천형무소를 탈옥한 젊은 김구가 숨었다가 반세기 만에 다시 찾았던 여정을 되살린 역사기행이다. 2001년 조선대학교 박물관장 재직시 1년여 동안 시민들과 함께한 <호남역사문화인물기행>도 빼놓을 수 없다. 함평, 영광, 광양, 구례 등 20개 시, 군을 시민들과 함께 찾았다. 지역의 의인들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호남의 정신문화유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된 이 기행은 후에 광주방송의 <호남인물열전>이라는 대중강좌로 이어졌다.

그의 역사기행 이야기는 들을수록 재미있다. 이 재미가 풀려나오는 곳은 어디인가? 그의 역사문화독법은, 역사기행이 단순한 지리 또는 인물의 행로를 읽는 걸음을 초월하여 민중의 삶이 축약된 여정을 성찰하는 걸음이라고 느끼게 한다. 잠들어 있던 역사적 사건들이 생생하게 상상력을 촉발하며 구체적 이미지로 형상화되기 때문이다. 멀고도 추상적인 것들로 치부되던 것들이 구체성을 띠는 순간, 역사는 비장하고 위엄에 차있으며 아름다운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가 되어 우리



1 2014년 광주시립미술관 '오월의 파랑새' 세미나 강연모습
2 대학시절 소백산 희방사 역사기행(맨 오른쪽)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우리 지역의 공동체의식, 사회책임의식에 더하여 사상적 학술적 저력과 역량도 중요함을 강조한다. "호남은 굳이 예향 의향의 틀에서 이해되었지만 광주의 향토사 연구 그 바탕에 깔린 의식 정신 나아가 학술의 힘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자면 옛 문헌 기록에 대한 해독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니 "한학(漢學)을 구학(舊學)으로 치부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수장으로 그가 가진 포부는 무엇일까. "어느 시대 어떠한 나라에서도 전통을 무시하고 외부의 시선 개념에 의존해서는 주체적 성찰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부의 자발적 동력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호남진흥원은 전통의 재발견 법고창신의 학술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는 공공 상생의 문화 마중물을 소망하고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은 예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예를 들면 향약운동, 의병운동 등에서 보듯이 아래부터의 자발성이 두드러졌는데 오늘날에도 시민사회의 추동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안동에서 한국국학진흥원 출범 직후 1996년 즈음에 학계 전문가 등이 충격을 받고, 국민의 정부의 유교

문화권 사업에 포함되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자, 여기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도 관심을 보였지만, 이후 도청 이전과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에 묻혔다. 이후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산발적 건의가 있다가 급기야 민간추진체가 결성되고 호남권 교수연구자의 집단 건의가 있었다.

그러나 예산 공간 등을 확보하자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어떻게 힘을 합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가 2014년 하반기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상생 공동과제로 정책연구기관의 통합, 호남권 학술기관 설립에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이 과정에 광주전남연구원은 혁신도시 빛가람으로, 호남권 학술기관은 일단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 4층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호남 지역 한국학 기록문화유산의 발굴·보존 연구’를 하며, ‘호남 지역 한국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차세대 한국학 연구자 특히 한문해독 후속세대 양성’을 통한 ‘호남 지역 한국학 연구 진흥의 허브(Hub) 역할’을 하고자 한다.

전국적 수준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연구역량, 문헌독해능력을 갖춘 연구직을 임용 초빙함으로써 ‘현능한 인재들이 조화하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이라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 또한 일반에는 생소하지만 학술행정의 새로운 모범을 세우고 싶다. 이야말로 뒤늦은 출발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만드는 길이며, 선행 기관과의 협력 연대의 조건이 될 것이다. ♪

기획연재_ 호남지역의 서원, 향교, 사찰, 정자의 현판과 주련이야기

굽어보고 우러러 보는 ‘면앙정’

임준성_ 광주여대 교수



면앙정은 제월봉의 허리 부분에 자리잡고 있다. 이른 아침 안개 자욱한 날에 면앙정에 가보면 제월봉이 물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용이 물에 잠겨 반쯤 제모습을 드러내는 것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면앙정은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에 있다. 전라남도 기념물 6호이다. 건물의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추녀 끝에는 4개의 활주(活柱)가 받치고 있다. 사방둘레에 마루를 두었으며 정자 한가운데에 방을 배치하여 방과 마루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임진왜란에 불탄 것을 1654년 후손들이 새로 지었던 것이다. 1989년에 대대적인 보수를 거친 했으나 오늘날까지 원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면앙정 전경

면앙정으로 올라가는 길부터 가파르다. 계단을 밟다보면 시선은 저절로 아래로 향한다. 첫번째 계단이 끝나고 오른쪽으로 향하는 평지길을 걸을 때는 고개를 뒤로 젖혀 하늘을 바라본다. 다시 두번째 계단을 오른다. 역시 이때도 시선은 아래를 향한다. 계단 끝에 이르러 왼쪽은 면앙정이 보인다. 면앙정에 오르기 전까지는 정자의 이름에 걸맞게 굽어보고 우러르고 여러 번 반복한다. 정자로 발걸음을 옮기다보면 면앙의 뜻이 여러 번 새겨지는 듯한 기분이다.

누정 뒤쪽 난간을 잡고 둘러보면 추월산,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중 몽선산은 삼신산(三神山)으로, 불



면앙정 현판

대산은 병풍산(屏風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제월봉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면앙정을 바라보면 추월산 절벽 끝으로 넓은 벌판이 펼쳐지다가 제월봉에 이르면 갑자기 용이 몸을 일으켜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면앙정은 제월봉의 허리 부분에 자리잡고 있다. 이른 아침 안개 자욱한 날에 면앙정에 가보면 제월봉이 물 위에 떠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용이 물에 잠겨 반쯤 제모습을 드러내는 것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어떨 때는 정자 아래까지 안개가 올라와 정자가 구

름 속에서 두둥실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송순은 면앙정이 자리한 곳에 대해 「면앙정가」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있어 / 멀리 떨치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 끝없이 넓은 들에 무슨 생각하느라고 / 일곱
굽이가 한데 움추려 무더기무더기 벌여 놓은 듯 /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늪은 용이 /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혀 놓은 듯하네
/ 넓은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을 탄 청학이 /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하네

여기서 면앙정이 중심으로 삼은 산이 무등산임을 밝히고 있다. 무등산 한 줄기가 뻗쳐 제월봉이 되었고, 그 한 가운데에 정자를 앉혔다. 이 부분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송순을 늪은 용에 비유하고 있으며, 면앙정의 모습은 비상하려는 청학의 이미지로 형상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루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면 면앙정을 노래한 시문을 담은 현판 「면앙정가삼언(면앙亭歌三言)」이 걸려 있다.

倪有地	굽어보면 땅이요
仰有天	우러르면 하늘이라
亭其中	그 가운데 정자 있으니
興浩然	호연지기 흥취가 나네
招風月	바람과 달을 부르고
挹山川	산과 시내도 끌어들었고
扶藜杖	명아주 지팡이에 의지하여
送百年	한 백년을 보내노라

정자에 올라오는 동안 이미 굽어보고 우러러 본 터라 시를 읽은 느낌이 새롭다. 호연한 흥취는 시원스레 부는 바람과 함께 온다. 사방에 있는 산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듯하다. 명아주 지팡이에 의지하여 한평생을 보내겠다는 송순의 계산풍류(溪山風流)가 호기롭게 느껴진다.

면앙정의 역사는 송순이 32세 때인 1524년에 구입한 것으로 시작한다. 그 무렵 송순은 부친상을 당해 고향집에 내려와 있었다. 마침 곽씨(郭氏)한테서 이 터를 구입했는데, 곽씨가 터를 내놓은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하루는 곽씨가 벼슬아치를 실은 수레가 자신의 집으로 몰려오는 꿈을 꾸었다. 곧 곽씨의 자식들이 장차 크게 벼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식교육에 온 힘을 기울였는데, 결과는 신통치 않아 실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에 낙심한 곽씨는 송순에게 이 터를 팔았던 것이다.



면양정가삼언

소쇄원(瀟灑園) 주인인 양산보(梁山甫)가
송순의 원운시 3수에 차운한 시 3수

그러나 광씨의 꿈은 송순을 통해 실현되었으니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후 송순은 면양정을 찾는 이마다 '면양'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여간 귀찮게 생각했던 탓인지 「俛仰亭贊」을 지어 여기 찾아오는 이들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대신하였다.

下壤上穹	아래는 땅이오 위는 하늘이라
小亭子于其中	자그마한 정자 그 가운데 있네
老夫日俯仰於兩間	늙은이[나]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해를 보고 구부리고 우러르니
而中心無愧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라
自信克己之功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는 공은
苟非氣養浩然	진실로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아니로다
下際于地	아래로는 땅에 닿고
上蟠于天	위로는 하늘에 서려 있으니
雖欲俯仰	비로 구부리고 우러르고자 하나
安得無愧於心焉	어찌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自從俯仰	스스로 구부림과 우러름을 따르면
非徒在兩間	모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天地備我	하늘과 땅은 나를 갖췄는데
反以吾身	도리어 내 몸이 되었네
觀吾亭吾自贊	내 정자를 보고 내가 찬하러니
恐貽譏後世	후세사람들이 나무랄까 두려워
不欲掛亭欄	정자 난간에 걸지 않겠도다

시 전체적인 내용은 「면양정가삼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후세 사람들의 나무람이 두려워 정자 난간에 걸어드지 않겠다는 송순의 마음씀씀이가 오히려 더 크게 보인다. 

문화진단

전라도 정도 1천년과 그 의미

김덕진_ 광주교육대 교수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전라도는 재정의 50% 가까이를 부담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심지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라도는 장시와 포구를 통한 유통경제의 선진지이기도 하였다.

1. 견고한 지역 정체성

고려의 지방 통치제도인 5도 중에서 전라도의 명칭이 가장 먼저 생겨났다. 그때가 1018년이다. 금년은 1천년이 되는 해이다. 다른 도의 명칭은 자주 바뀌었지만, 전라도는 상대적으로 명칭 변화가 적었다. 그리고 다른 도는 시대에 따라 영역이 자주 변했지만, 전라도 지역은 거의 변화가 없이 현재에 이른다. 따라서 전라도는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 정치의 중심지

전라도는 후삼국 성립과 고려 개창의 중심 지역이었다. 전라도 호족과 전라도를 통해 도입된 선종 사상에 의해 골품제도를 토대로 한 왕족 중심의 사회가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말이다. 또한 조선 왕조의 선조 대 사림정권을 수립하는 데에 호남사람이 크게 기여하였다. 사림 정

권은 낙향 은둔과 서원 서당 누정 건립 등으로 지식 '성리학'의 보급과 지역 '외촌' 개발에 기여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고려시대 삼별초 대몽항쟁과 왜구 격퇴의 경험을 토대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의 호남의병 창의를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근대 민족국가 수립운동에 기여한 점은 역사 교과서에 선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동학농민운동, 항일 의병, 을사 5적 암살단, 광주학생독립운동 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라도는 해방 이후 '여·순사건' 좌우이념 대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과 민주정부 수립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과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두고 한 말이다.

3. 경제의 중심지

현존하는 우리 역사 속 통계는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 작성



1, 2, 3 수서 SRT역에서 만나는 '전라도 방문의 해' 홍보물과 전시 4 2017년 전시영 미디어아티스트의 '금성관, 천년의 빛을 입다' 미디어 파사드

된 것이 최초이다. 그에 의하면 전라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보였다. 그것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전라도는 재정의 50% 가까이를 부담하는 등 국가경제의 중심지였다. 그뿐만 아니라 전라도는 장사와 포구를 통한 유통경제의 선진지이기도 하였다. 정기시장인 장시가 15세기에 최초로 전라도 서남부에서 발생하였거나 많은 포구를 배경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양 항해를 행하였던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전라도는 국내 최고 수산업 생산 지역이었는데, 이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사람들은 도자기, 종이, 부채 등 수공업을 발달시켰다. 특히 우리의 대표적인 민족문화 가운데 하나인 고려 청자를 탄생시킨 곳으로 유명하다.

4. 남은 과제

우리는 광주, 전남, 전북으로 나누어진 틀을 벗어나 전라도 전체를 하나로 묶는 종합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전라도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수도권역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욱더 그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전라도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당당한 전라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전라도의 일체감을 추구하고 나아가 전라도의 정체성 확립, 전라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작업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

문화교류

우리가 찾아 나선 사람·풍경·인권

- 대만에서 만나다

김정희_재단 편집위원장, 시인



... 좋은 풍경 앞에서 한참을 머물다 가는 새가 있어. 그 새는 좋은 풍경을 가슴에 넣어두고 살다가 짝을 만나면 그 좋은 풍경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일생을 살다 살다 죽어가지

차갑고 푸른 겨울 새벽 예술회관의 광장에서 일행은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출발했다. 대만행- 가슴 아픈 역사의 기억을 공유하는 곳이기에 지역문화교류 재단은 이번 해외 역사문화 탐방 지역으로 대만을 선택했다. 타이완은 1590년 포르투갈 선원이 이곳을 발견하고는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포모사(Fomosa)라고 이름 지을 만큼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타오위안 국제공항에 내리자 훈훈한 바람이 늦가을의 감촉으로 손을 내밀었다. 두 시간 전의 겨울 광주와 이곳의 가을 날씨- 잠시 시간이 유예되고 있는 것일까. 남은 일정동안 우리를 안내해 줄 현지 가이드와 관광객용 셔틀버스를 타고 50분 쯤 달려 대만 시가지에 들어섰다. 가이드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3위라는 대만의 자연환경과 풍습, 역사를 설명했다. 산과 습기가 많고 스트레스가 없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대만에서의 첫 식사는 야채를 고기와 함께 먹는 몽고리안 바베큐. 낯설지 않은 맛이지만 웬지 후추를 툭툭 뿌리고 싶었다. 여행지에 서는 개인적인 사소한 취향은 테이블위에 넉넉처럼 접어 두고 무엇이든 ‘호락호락’ 해야 한다. 여권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여행은 편안함, 습관, 제약을 주머니 깊숙이 넣어둔 채 상투적이지 않은 풍경과 사람을 만나고 싶은 기대를 갖게 한다.

스린야시장은 현지인은 물론 여행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대만 제1의 야시장으로 대만사람들이 퇴근하는 길에 잠시 들러 저녁을 해결하는 곳인 동시에, 주머니가 가벼운 연인들의 부담 없는 데이트 코스다. 포장마차와 비좁아 보이는 가게들에는 가는 곳마다 갖가지 과일, 음료, 신선한 해산물이 색색의 불빛에 먹고 싶기보다 만져보고 싶은 꽃처럼 피어났다. 노란색, 오렌지색, 자주색, 녹색, 파란색... 낮보다 밤의 색깔이 훨씬 풍부한 야시장에서 색의 미로를 따라 화장실을 겨우 찾았는데 일행이 기다리는 장소로 돌아가는 데는 애를 먹었다. 상점과 상점 사이의 물건이 작은 다리로 이어진 듯 했고 술병과 음식들은 낯선 이들을 초대하고 종업원들이 왁자지껄 호객하는 소리도 똑같이 들렸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온전히 낯설고 떠들썩한 골목에서 길을 잃었다. 초스피드 시대에 인력거를 타고 가는 듯 길에 대한 적응 유전자가 유난히 모자라는 나는 길을 나서면 늘 불안하다. 신발아래 땅의 길도 그렇고 무게 중



1 지우편의 홍등 아래 2 예류 해상 지질공원의 독특한 해식 경관

심을 자주 잃어버리는 마음의 길은 여전히 문제다.

스린 야시장의 작은 찻집에서 나무의자를 끌어당기고 버블티와 녹차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 메뉴판 글자들을 전혀 몰라도 '이거요' 손가락과 눈웃음에 익숙한 사람들. 나의 대만여행을 스린 야시장에서 그렇게 어설프게 조율하며 시작됐다. 결코 내가 아는 길을 만나지 않으리라.

대만 여행 둘째 날 지우편과 진과스 황금박물관을 찾았다. 한적한 산골 마을이었던 지우편은 청나라 시대금광으로 유명해지면서 화려하게 발전했으나 광산업이 시들해지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급속한 몰락을 맞게 된다. 그러다 이런 지우편의 분위기를 그대로 담은 영화 '비정성시(悲情城市)'가 1989년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져 지금은 대만에서 손꼽는 관광 명소로 거듭났다. 구부러진 계단을 가다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센과 히치로의 행방불명' 촬영지라는 팻말을 보았다. 한국드라마 '온에어'와 '꽃보다 할배'도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대만의 동북쪽 지우편은 산을 끼고 바다를 바라보며 지룽산(基隆山)과도 마주 보고 있다.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는 지형의 특성상 모든 길이 계단으로 구불구불 연결된다. 주렁 주렁 흔들리는 홍등이 별 같은 눈빛하나가 겨우 지날 것 같은 오래된 집들에 매달려 독특한 분위기와 즐거움을 준다. 낡은 벽면을 그대로 색칠하지 않은 일본풍의 집들, 화려한 풍물과 음식점, 찻집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 혹은 프랑스가 대만의 연안지역을 지배했지만 1894년 청나라가 청일전

쟁에 패하면서다음해인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대만은 청나라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싹틔줄처럼 이어진 상점에서 동물 모양의 오키리나를 샀고 누군가 이곳의 명물이라는 팡콩아이스크림을 사준다. 기기묘묘한 신비한 상품들의 유혹, 문득 부자가 되어 이곳에 다시 오고 싶다. 이 여행에서 나는 아는 것을 판단하기보다 만나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진과스(金瓜石) 황금박물관은 20세기 전반까지 아시아 최대의 황금 생산량을 자랑하던 금광 지역으로 금의 양이 줄자 폐광이 되어 지금은 관광지로서 거듭난 곳이다. 옛 황금시대의 문화를 재현 놓은 황금박물관은 유리와 철근으로 지어져 현대적 모습을 하고 있지만 예전 금을 캐던 광산의 문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220kg이나 나가는 순도 99.9%의 황금을 만져볼 수 있도록 했다. 모두들 손을 내밀어 황금을 만지며 지금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구나 생각했을까. 하지만 나는 폐광 철도역에서 비웃을 입고 통소 같은 악기로 귀에 익은 음악을 오래 연주하던 도인을 바라보던 짧은 순간이 인상적이었다. 내 기억속 진과스의 비바람 속에는 악공의 슬픈 연주가 살아 있다. 휴일이라서 팔지 않는 광부도시락의 맛도 궁금하다.

예류(野柳) 해상 지질공원은 좁고 긴 모습을 한 해갑(海岬)이다. 오랜 세월동안 침식, 풍화작용이 일어나면서 길이 1,700미터의 해안에 황홀한 자연 예술품을 뿌려 놓은 이곳은 세계에서 두 곳, 터어키와 예류에서만 마법같은 모래조각의 풍경을



1, 2 징메이 국가인권박물관 3 2·28국가기념관 전시물

볼 수 있다고 한다. 비가 많은 곳이지만 오랜 시간 다져지면서 모래는 바위 조각이 되었다. ‘쫓대 바위’는 예류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해식 경관이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구멍이 가득한 ‘별집 바위’, 네모반듯한 눈두렁 모양으로 놓인 ‘바둑판 바위’ 울퉁불퉁한 모습을 한 ‘생강 바위’ 등 특이한 모양으로 인해 고유한 이름이 붙여진 바위들을 감상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도 같은 이 바위들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훼손될까 봐 만지는 걸 철저히 금하고 있다. 견고하고 지속적인 인간의 두께를 볼 수 있는 예류 지질공원은 자연의 신비를 웅대하고 진지하게 바꾸어 놓은 장소다. 고개를 숙이고 어느 찰나에 이루어졌을 환상 같은 자연의 근원적인 힘에 마음을 내려놓는다.

... 좋은 풍경 앞에서 한참을 머물다 가는 새가 있어. 그 새는 좋은 풍경을 가슴에 넣어두고 살다가 짝을 만나면 그 좋은 풍경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일생을 살다 살다 죽어가지 ...

문득 그대들이 그림다.

대만 외곽의 관광 스팟인 예 스 진 지의 스펀에서는 흔들다리 건너기와 천등날리기 체험을 했다. 붉은 천등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쓰고 건강과 행운을 빌며 하늘 높이 천등을 날렸다. 기우뚱 거리면서도 균형을 잡아 흐린 하늘로 날아오르는 천등을 바라보았다. 먼훗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가와 있다. 줄지은 관광객들의 함성을 뒤로 하고 국제금융빌딩 대만의 랜드마크 101빌딩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중정기념관이 대만의 랜드마크였지만 지금은 ‘국제 금융 빌딩’으로 알려진 대만 101빌딩이 관광객이 줄을 서서 보아야 할 만큼 유명한 랜드마크라고 한다. 한 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지만 지금은 세계8위라는 가이드의 설명이다. 이 건물의 높이는 508m에 이르며 지상 101층, 지하 5층으로 1분당 1,010m의 속도를 자랑하는 엘리베이터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단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라딘 가문이 건설 중인 초고층 마천루 ‘제다타워’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제다’는 2019년 완공 예정이며 지상 168층, 1007m 다. 마치 하늘로 뻗은 대나무 위에 꽃잎이 겹겹이 피어난 것처럼 보이는 101빌딩은 8층씩 총 8개의 마디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대만 사람들이 숫자 ‘8’을

길한 숫자로 여겨서 매우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가와 전 세계 유명 브랜드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고급 쇼핑몰이 자리 잡고 있는데, 유명한 딤섬 식당인 딘타이펑(鼎泰豐)과 대만에서 가장 넓은 커피숍도 바로 이곳에 있다. 9층부터 84층까지는 은행과 증권 회사 등 금융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85~87층은 전망대 식당, 89층에는 실내 전망대, 91층 실외 전망대가 있다. 382m의 89층 전망대에서는 빌딩의 진동을 제어해 주는 거대한 추(Wind Damper)를 본 것이 인상적이었다. 다른 곳에서는 설계상 이 추를 감추어 놓는데 이곳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하며 새삼 빌딩의 위용을 실감케 했다. 전망대에서의 환상적인 대만 야경과 관람객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영상으로 비추어 주는 서비스도 과장스럽지만 즐거웠다. 101빌딩은 높이 오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측정의 과학, 지루함을 거부하는 호기심이 빛은 유리 진열장 같았다.

대만 답사 사흘째 일행은 이번 대만 여행의 주요 방문지인 징메이 국가인권기념관을 찾았다. 이곳은 대만의 중요한 역사인 백색테러를 증명하는 공간으로 민주화를 요구하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할 때 이들에 대한 체포와 감금이 이루어지던 강제 수용소이자 감옥이다. 이곳은 처음 1957년 6월 중화민국 국군의 군법학교 건물로 세워졌고 1968년 중화민국 정부는 이곳을 경찰과 군의 감옥 일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970년 중화민국 정부는 국방부군사정보국간수소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징메이 군사간수소(중국어 정체: 景美軍事看守所)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2002년, 중화민국 행정원 산하 문화건설위원회는 이곳을 징메이인권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의 사적지로 개편하였다. 2007년 중화민국 국군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행정원 문화건설위원회로 양도하고 정식으로 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2009년 현재의 이름인 징메이 인권문화공원이라는 이름이 정식 제정되었고, 2011년 국가인권박물관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기념관 마당에는 우리의 해태상과 비슷하게 나쁜 기운을 막고 나쁜 사람을 징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전통적인 동물 '시에츠'가 런아이루(仁愛樓) 바로 앞에 세워져 있었다. 이 시에츠는 수감자가 끌려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곳에 수

감자가 끌려오면 시에츠가 머리위에 빨간 뿔을 이용해서 그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한다. 특히 이번 징메이 방문에는 사전 연락이 닿았던 당시의 수감자 말레이아 출신의 '진흙생' 선생이 그때의 시대상황과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어 더욱 진솔한 감동을 느꼈다. 진 선생은 당시 증거 조작과 강압에 의해 12년 형을 선고 받았고 만기 출소 후에도 국민당 정부의 방해로 말레이아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진 선생은 어머니과의 눈물어린 재회 그리고 처절한 기다림과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개인의 인생이 철저히 파괴되었음을 전해 주었다. 그는 대만 민주화의 산증인으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교육, 강의 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광주의 5·18과 관련한 영화 <화려한 휴가>나 <택시운전사>도 알고 있었다. 미국 흑인노예사의 아픈 속살을 예리하게 파헤친 볼드윈(James Baldwin)이 말한 대로 역사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교묘하게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생각해 보았다.

징메이 박물관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인 런아이루(仁愛樓)는 많은 사람이 체포되어 수감되었던 공간이다. 전 대만 부총통인 뤼슈롄(呂秀蓮) 또한 까오슝사건때 재판을 받고 이곳에 수감되었다. 런아이루 내부에는 취조실, 병원, 면회실, 운동장, 감옥, 노동공간, 식당 등이 있다. 취조실은 재판을 받고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가족 사항, 지은 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후 감옥으로 이동한다. 이곳의 시계는 새벽 4시 4분에 멈추었는데 이 시간은 사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한다. 전시실에는 '50년대 백색공포'라는 사진 제목도 보였다. 옛 모습을 재현한 감옥에는 쇠로 된 사슬이 당시의 수감자들이 받았을 죽음의 공포와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고스란히 전해주는 듯 했다.

감옥 내부에서는 외부 공간이 작은 창 크기 밖에 보이지 않지만 외부에서는 감옥 내부를 전부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수감자들은 감옥 내부에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 했고 작은 구멍을 통해 음식을 받았다. 평소에는 8~10명정도가 생활하는 공간이었으나 가장 많은 때는 20~30명 까지 생활하기도 하며 잠도 교대로 자야했다고 한다. 감옥의 닫힌 문을 본다.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은 문이라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문

도 문이라 할 수 없으며 자기 손으로 열고 나가는 문이라야 문이다. 그렇게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문이어야 문이라는 글귀를 떠올린다. 수감자들은 이곳에 갇혀 있는 동안 옷을 빼는 일, 옷을 다리는 일, 계란 등에 그림을 그리는 일등의 노역을 했다고 한다. 면회실, 녹음실, 매점 등도 둘러보았다. 수감자들이 '동동신문'이라고 불렀다는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을 삭제한 구멍난 신문은 당시의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했었는지 보여주었다.

대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그리고 운택한 삶의 이면에는 그들만의 아픈 기억이 있다. 바로 백색 테러라고 불리는 대만 '2·28사건'은 1947년 중국 본토에서 밀려난 장제스 정부의 군대가 대만으로 피신하면서 원주민들을 핍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타이베이 시 연평북로에서 담배 밀매로 생계를 잇고 있던 40대 원주민 부녀자를 중국 본토 출신의 전매국 직원이 적발해 담배와 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히고, 이를 항의하는 무고한 대만 원주민에게 총을 발포했으며 3월 9일부터 대대적인 살육과 약탈을 자행, 진압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원주민들이 희생되고 현지 정치 지도자와 경제인, 언론인들도 체포돼 희생당했다. 1992년 2·28특별위원회가 1년간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만8,000 2만8,0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으나 정부와 민간단체가 주장하는 희생자 수는 격차가 크다. 2·28사건은 대만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대만 현대정치의 아킬레스건이다.

우리 일행은 징메이기념관을 둘러 본 뒤 시내에 위치한 2·28국가기념관을 향했다.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 시 중심부인 중정 광장 앞쪽에 위치한 2·28화평공원에는 2·28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과 기념광장, 예술광장(야외음악장) 등 시설물이 있다. 특히 2·28사건과 관련된 방송국이 있던 연면적 500㎡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보완해 설립한 역사기념관에서는 대만 2·28사건을 비롯한 대만의 현대사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볼 수 있었다.

1층에는 2년여 동안 논란을 벌인 끝에 완성된 2·28사건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진상 규명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비문이 걸려 있으며,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정부가 들어오

기 이전 대만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비롯해 일본 통치하 대만의 역사들을 둘러 볼 수 있었다. 또 2층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군대가 대만으로 들어온 사실과 2·28사건의 발생 배경, 당시 희생자들의 사진, 언론사 보도 내용, 희생자 유물, 사건 관련 서적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이날 특별히 대만국립 정치대에서 한국어와 역사 문화를 가르치시는 주리시 교수도 우리 답사팀을 찾아 주셨다. 주 교수는 대만 2·28 관련 과거사 청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고 한국과 대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5·18 등 광주 민주화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을 계속해오셨다고 한다. 우리는 기념관 한쪽에 '시유진'이라는 대만인을 가족들이 벽을 뚫고 17년간 숨겨 주었다는 방도 둘러보았다. '과거를 다시 체험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재구성하는 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일이다. 과거를 파헤치지 않고 어찌 그 완고한 정지(停止)를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며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고서 어찌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으랴 싶습니다...' 징메이인권 박물관과 2·28기념관을 돌아 나오며 신용복 교수의 문장을 떠올린다.

다음으로 대만여행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인 국립 고궁 박물관으로 향했다. 영국의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박물관 중의 하나인 고궁 박물관의 전시품 대부분은 중국 왕조의 황실 유물로, 본래는 중국 베이징의 고궁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던 것을 1948~1949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해 온 것들이다. 박물관 본관은 중국 궁전 양식의 4층 건물로 녹색 기와와 황색 벽면이 특이하며 그 밖에도 여러 동의 부속 건물이 있고 본관 뒤 산의 중턱에는 지하 수장고를 지어 귀중한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박물관은 값을 따질 수 없는 오천 년 역사의 중국 보물, 미술품 69만 점으로 꽉 차 있다. 때문에 한꺼번에 전시하기에는 어려워 인기 있는 것들은 상설 전시관에 전시하고 옥, 도자기, 회화, 청동의 보물들은 일정 기간을 두고 테마를 바꾸어 가며 전시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특히 취옥백채는 고궁 박물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흰색과 녹색을 띤 옥을 정교하게 조각하여 배추라는 친근한 소재를 표현하였고, 배추 앞에는 여치와 누리가 앉아 있는데, 둘



대만민주기념관

다 번식력이 뛰어난 곤충이다. 신부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동시에 황비에게 자손이 많아 대대손손 황실의 혈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 눈에 들어 왔던 것은 청나라 육형석- 신선하고 육즙이 많은 '동파육(삼겹살 조리)'과 너무나 똑같아서 보는 이들의 입에 침이 고이게 하는 작품이다. 오랜 세월을 걸쳐 한 층 한 층 다른 색깔로 형성된 천연 마노를 재료로 삼아, 본연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 색을 입히고 정교하게 조각하여 모공과 피부결까지 표현해 낸 진귀한 작품이다. 명백하게 실용적이지는 않아도 얼마나 오랜 세월과 얼마나 큰 노력이 이 박물관의 감동을 만들어 냈는지 모든 창작물에 대한 경외심이 잠시 나를 순례자로 만든다.

대만 여행의 마지막날 일행은 대만 기념관을 찾았다. 최근 '타이완 민주 기념관(台灣民主紀念館, 타이완 민주 지넨관)'이라고 이름을 바꾼 국립중정기념당은 타이완 초대 총통인 장제스(蔣介石)를 기념하기 위해 1980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총면적 약 25만km의 대지에 중국의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들은 고대 중국의 왕릉과 비슷한 규모로 설계되었다. 정면에 있는 높이 76m의 거대한 대리석 건물인 기념당은 남색과 흰색을 주요 색조로 하고 천장은 하늘을 향해 둥근 형태를 띠며, 89개의 계단을 오르면 기념당 2층으로 도착한다. 그곳에는 높이 6.3m, 25톤 무게의 장제스 총통 동상이 중국 대륙을 향해 앉아 있어 대만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내부 전시실에는 장제스 총통이 생전에 사용했던 물품과 사진 등 그의 생애를 짐작할 수 있는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 주

위로 정자, 연못이 있으며 우아한 정문 양측에는 국립 극장(國家戲劇院)과 콘서트홀(國家音樂廳) 건물이 있다.

지난해 2·28사건 발생 70주년을 맞아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직접 나서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 첫째로 차이잉원 총통은 2·28사건에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실 역사적 사건에서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가해자 없는 피해자는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해자인 국민당은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차이 총통은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피해자들만 있고,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는 모호한 상황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헤쳐 이 임무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가해자로서 국민당 지도자로 추앙 받아온 장제스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직결되는 문제다. 차이 총통은 대만 시내 중심에 넓게 자리 잡은 장제스 기념관의 성격까지 바꿀 것을 시사했다.

가슴에 멍장면 하나쯤 간직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3박 4일의 여정-시장과 박물관과 기념관을 보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여행은 떠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아닌 돌아옴(歸)이라고 한다. 자지 자신의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우리의 아픈 상처로 돌아오는 것일 뿐이라고. 눈앞에 걸어야 할 길과 만나야 할 시간들이 펼쳐져 있는 사실만으로 여행자는 행복하다고 한다. 우리들의 대만 여행은 행복했다.

문화현장

정글에도 법칙이 있듯, 문화창작자들을 위한 생존의 룰이 필요하다!



이정현 (주)툴아이피 1%공작소 대표

30개 청년단체 및 회사가 연합한 상상실현네트워크에서는 지난 5개월간 문화창작자의 지적재산으로서의 기획비, 인건비 책정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지역문화교류재단과 광주문화재단과의 2차례의 포럼과 지역 언론에 칼럼 기고를 통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하여는 광주시를 포함, 시의원, 공무원, 기관의 관계자, 광주내외의 전국의 문화기획자들까지 적극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비단 올해 뿐 아니라 수년전부터 문화현장에 있는 전국의 문화창작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담론이 아닌 관계자와 기관들이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야 할 적극적 실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것은 문화인력들의 창조적 과업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역의 조례는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기획자의 인건비 문제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지식노동을 하는 모든 계층의 노동에 대한 경력과 그에 상응하는 비용문제에 대한 근거를 중앙부처의 상위법에서 기준안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문화기획에 대한 과업의 규정, 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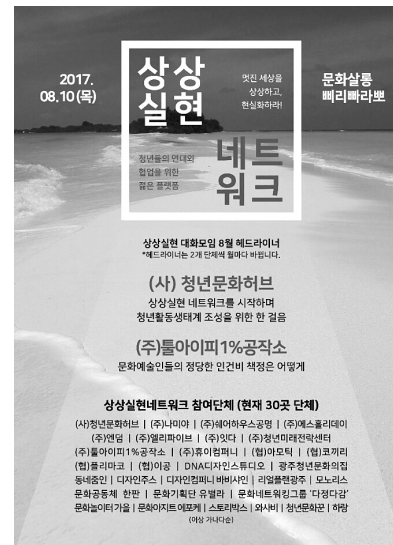
2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축제기획자 양성과정 운영사진 2 축제기획자 연계 어린이 페스티벌 페레이드 프로그램 운영 기념사진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문화영역에 종사하는 여러 창작자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 책정기준 마련은 창작을 위한 생태계조성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전문적인 업무내용, 그리고 실행하는 이의 경력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한 초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론 문화예술 창작행위 전반을 창작공정이라는 규정된 틀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기획을 포함한 창작이라는 일 자체에 대하여 자신의 과업을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는 문화창작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직업으로서 문화기획자라는 자신의 위치와 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특별히 기관,단체 및 사업자가 없는 개인문화기획인력들은 기획비 혹은 인건비 책정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들의 문화기획활동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인력의 정당한 인건비책정을 위해서는 첫째로 문화기획자의 업무공정이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문화기획서 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집니다. 관련한 문화행사의 리서치 자료부터 구현하고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를 통해 기획서를 읽는 사람이 행사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실행에 대한 세부시나리오가 작성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신의 네트워크 내에 인물들이 감독 및 스템으로

참여하게 되며 때론 자문,전문,운영위원등의 추진조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및 홍보와 마케팅 전략, 프로그램 종료 후의 사후관리,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적격증빙을 하기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합니다. 최근에는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방문객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동선, 행사 참여이후 이어지는 소비패턴까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이 기획서 한 장에 기획자의 인적, 물리적, 지적재산들이 논리적인 언어로 풀려져 문서화됩니다. 두 번째로 문화기획자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초기 문화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는 있으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사업들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아 경력이 부족한 경우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 경력 인정의 부분은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수행역할 기간 및 참여도 등으로 산정할 수 있고 학술용역의 사례를 통해 소지한 학위에 따라 구분된 내용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연구과제 운영지침등을 통해 발표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것처럼 문화기획에서의 경력과 인건비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합니다. 지면의 한계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언급하기 어렵지만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문화영역에 종사하는 여러 창작자들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 책정기준 마련은 창작을 위한 생태계조성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창작의 흐름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을 통해 현실과 가상현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문화창작의 영역에서도 기술과의 결합은 미디어의 영역에서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문화현장을 뒷받침하는 문화정책, 문화행정은 그 흐름을 잘 뒷받침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규정으로 모든 시대를 변화를 측정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현장의 필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인 행정과 정책을 무리하게 요구하기 보다 문화협치의 가능성과 문화현장의 대화의 통로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



상상실현네트워크 포스터

문화청년그룹

청년과 청년, 청년과 지역, 청년과 사회를 잇는 플랫폼

- 광주청년센터the숲

문정은_ 광주청년센터the숲 센터장



1 2017 청년정책 연구공모 2 버킷캠퍼스 졸업식 단체사진

광주청년센터the숲(이하, '청년센터')은 2015년 6월 개관한 광주시의 청년정책 집행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청년센터의 주요한 역할은 청년정책의 발굴, 추진, 연구, 집행

이며, 그 외에도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청년의 능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등을 합니다.

청년센터의 개관 초기, 지역의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청년상을 그리며, 청년 스스로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 왔습니다. 2015년 6월 개관 이후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기본조례를 만들어 청년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모색하고, 지역 청년들의 삶을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 청년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지역 청년관련 전문가, 관련 유관 조직들이 청년정책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종합실태조사를 통해 둘러본 청년들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정확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에는 광주청년계층별 실태조사도 진행, 2017년 신규 사업인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드림사업 등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센터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더욱 능동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개관 이후, 2년



1 내지갑상담 2 청년같이 연합보고회 3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청년모임' 청년팍 4 피움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그 변화는 새로운 운영법인과 센터장의 선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센터는 지역 청년들의 구체적인 삶에 주목하겠습니다. 청년들을 둘러싼 현실과 환경을 살피고 그에 따른 조건을 바꿔내는 일들을 지속적이고 안정감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최근 청년센터는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체제로의 변화를 단행하였습니다. 그간 진행해온 다양한 사업 역시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과정 역시 살피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잇고,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는 온라인 청년플랫폼 '도깅', 마음 건강을 들여다보고, 진로, 꿈, 연애, 인간관계, 경제생활, 부채 문제 등을 상담을 통해 접근하는 '토닥토닥 상담소', 소규모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청년모임',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

'청년도전사업', 구체적인 의제 활동을 하는 청년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사업인 '청년같이', 청년을 둘러싼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작은연구공모사업 '청년살이', 그 외에도 청년정책 교류 및 아카이빙, 청년정보구축 사업,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자기모색을 진행하는 '청년드림사업' 청년활동형을 통해 더 넓게, 더 깊게 청년들을 만나겠습니다.

청년센터the숲은 금남로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안쪽에 위치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무료 공간대관으로 언제나 청년 여러분께 활짝 열려있습니다. 다양한 청년들의 수많은 고민들이 만나고 연결되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센터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문화톡톡

국제PEN은 어떤 단체인가



박신영_ 재단 운영위원, 소설가

국제PEN이란 어떤 단체인지,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또는 어느 시기에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아니, 한국 문단에서도 또는 광주 문단에서도 국제PEN이 어떤 성격을 가진 문학단체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국제PEN은 영국의 시인 도슨 스코트여사가 1921년에 창립하였으며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유엔의 인권위



제 78차 국제 PEN대회 국제회의

국제PEN은 문학을 증진하고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결성된 범세계 작가 모임인 동시에 정치적 검열에 반대하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다가 박해 받거나 투옥된 작가를 위해 강력한 목소리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원화와 유네스코의 자문기구로서 인권문제와 문학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 문학단체이다.

국제펜클럽(PEN)은 시인(Poets)·극작가(Playwrights)의 P, 수필가(Essayists)·편집자(Editors)의 E, 소설가(Novelists)의 N을 가리키며, 전체로 펜(pen)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내 3대 문학단체의 설립 순서를 나열해 보기로 하자.

국제PEN 한국 본부는 1954년 10월 23일에 창설되었고 1955년 6월, 제 27차 세계대회에서 국제PEN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 그 해 7월에 인준을 받았다. 창설 당시의 구성원은 변영로, 주요섭, 모운숙, 이하운, 오상순, 피천득, 주요섭, 김기진, 백철, 이현구, 김광섭, 이무영 등이었다.

다음은 한국문인협회다. 한국문인협회는 1961년 12월 31일 창립, 5·16이후에 기존 사회단체는 해산당하고 문화단체의 통합을 종용 받아서 문학의 향상 발전과 함께 작가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발족하여 월간문학과 계간 한국문학인을 발행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작가회다. 한국작가회는 1974년 11월 18일 자유실천문인협회설립-민족문학작가회를 거쳐 지금 한국작가회의에 이르렀다. 유신체제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폭압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정착하기 위해 결성된 진보적 단체다.

문학단체라고 해서 똑같은 문학단체가 아니다. 문학 단체는 역사와 전통, 성격과 규모에 따라 그 위상과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



1 노벨상 수상작가 특별전 2 국제 PEN대회 시낭송



1 국제 PEN클럽 한국본부에서 발행하는 잡지 2 국제 PEN대회 국제회의

국제PEN이란 문학단체의 시작은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3개 단체 보다 제일 먼저 설립하였고, 또 국제적이었으며, 현재도 명백하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제PEN에 대한 광주문단의 인식은 우습게도 국제PEN이 마치 어느 동아리 단체인줄 알고 있다. 적어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국제PEN이란 문학단체에 대한 인식은 올바르게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문인을 대표한 단체장들로써는 더욱 그렇다. 그 무지의 근원이 얼마나 스스로를 모순되게 만드는 일인지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우선은 다른 단체의 인식보다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단체의 자기의식의 우수성을 들어내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아니면 문학의 질과 그 가치보다는 자신의 성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학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우선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인 사람의 글 속에 그 의미와 가치가 숨겨져 있다면, 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이 녹아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글이 어디 또 있겠는가.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내면에 감춰져 있는 인간애를 본다. 이를테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행동에서 느껴지는 믿음, 즉,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한다.

우리 사회에는 겉모습에 현혹되어 허황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진실을 벗어나 왜곡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다. 겉모습은 단지 겉에 들어난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 정직성, 성실성, 도덕성, 삶의 가치관, 진정성 등은 모두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모든 장르의 문학을 담고 있는 그릇인 문학단체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 그릇을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릇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워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물론 그릇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다. 고급스러운 그릇일수록 조심스럽고 귀하게 다뤄야 할 것이나, 아무거나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면 무엇을 담은 어떤 종류를 담은 무슨 가치가 있으랴. 그만큼 문학이라는 단체는 귀하고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PEN은 문학을 증진하고 작가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신장을 위해 결성된 범세계 작가 모임인 동시에 정치적 검열에 반대하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다가 박해 받거나 투옥된 작가를 위해 강력한 목소

리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이기도 하다.

현재는 114개국 145개 본부를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국제 문학단체다. 또한 국제PEN 한국본부는 세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우리 민족의 예술과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세계 각 국민들과 문화적으로 국제친선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삼아 활동해 왔다. 그러다 1970년 제37차 국제PEN 대회를 서울에서 열기도 했다. 그 후에도 1988년 52차, 2012년 78차를 경주에서 열었다. 문학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PEN대회는 시인, 소설가, 극작가, 수필가, 편집자 등이 참여하는 세계 유일 문학단체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세계 한글 작가대회를 창설 하여 매년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PEN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우리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글의 근본 시각을 구성해 세계관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PEN대회는 매년 개최한다. 국제PEN의 장점은 전 세계를 무대로 작가와 독자를 연계해줄 수 있다는 것, 자유를 박탈당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작가가 있다면 그 작가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국제적 단체다. 인간들의 언어는 법칙이나 본능적인 행위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부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각 민족과 국가단위로 이루어지나, 그 자체는 국정을 초월하며 그 어떤 상황과 변화 속에서도 국가 간의 상호교류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다. 국제PEN은 인류 공영을 위해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종족, 계급, 그리고 민족 간의 갈등을 타파하는 동시에 전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상을 실현하기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학은 가치 있는 생각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인 동시에 가치 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예술이다. 그 이유는 문학이 매개체로 삼고 있는 언어 속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학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지식 등을 동원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작품 속의 상황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공감하면서 깨달음과 즐거움을 얻어야 한다. 문학의 가치는 독자가 개인의 삶을 고양하고, 공동체의 바른 가치를 넓혀 나갈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본다. 



1 국제 PEN대회에서 시낭송하고 있는 서용좌 시인
2 노벨상 수상작가 사인회
3 국제 PEN대회 국제회의

문화톡톡

아직도 숙제 많은 '5·18 진상규명'

김 성_ 재단 부이사장, 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 부위원장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 초순까지 5개월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5개월간의 조사 결과 특조위가 내놓은 결론은 이러했다. 첫째, 1980년 5월 21일과 27일(전일빌딩) 광주 일원에 서 헬기사격이 있었다. 둘째, 전투기가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대기 한 적이 있었으나 그 목표가 광주라는 뚜렷한 증거는 찾아내지 못하였다. 셋째, 1985년에는 안전기획부 주도의 80위원회가, 1988년에는 국방부와 보안사령부가 주도한 511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군 자료를 수집하고 일부 왜곡·조작하는 작업을 하였음을 밝혀냈다. 특조위는 또 잘못 불리고 있는 단어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5·18 주동자들을 '신군부'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신(新)군부'라는 단어가 다른 군인들을 '구(舊)군부'로 치부하고, 그들만이 새롭고 참신한 군부인 것처럼 왜곡시킬 우려가 있어 대법원 판결문을 참고하여 보고서에 '5·17 내란집단'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언론에는 별로 보도되지 않았다.

軍기록 조작·폐기가 '진상규명' 어렵게 만들어

헬기사격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한 조종사는 없었으나 많은 목격자가 존재하고, '헬기사격을 하라'는 문서와 구두지시가 있었고, 탄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결론지은 것이다.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은 전투기들이 이륙하지 않았고, 조사위원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80위원회는 1985년 12대 총선에서 야권돌풍이 일어난 이후 조직된 것으로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511연구위원회는 국회청문회대책조직으로 구성되어 1988년 5월 11일에 출발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511대책반이란 조직도 있었다. 두 위장조직은 자료부족으로 전체적인 활동상은 파악되지 않았다. 내란집단은 문서 여러 곳을 조작하여 5·18을 왜곡하였는데 '충전작전 상보'를 보면 봉쇄작전지침을 시달하면서 '반항자 사살'이라는 표현이 '학살 내용과 관련될 수 있다'면서 '강력 대응'으로 수정토록 했으며, 전교사 문서에서 각 단계별 투입장비에 코브라(공격헬기)가 나오자 '강력한 공중화력지원 무기'라며 아예 삭제토록 했다. 현장 장교들의 체험수기에서는 '과잉진압'을 연상하는 표현은 모두 수정토록 했고, "5월 21일 오전 전남대 정문 시위군중 속에서 간혹 카빈총을 쏘아댔다"고 기술한 내용은 반증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시민군이 무장한 시점은 21일 오후 3시 이후였

헬기사격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한 조종사는 없었으나 많은 목격자가 존재하고, ‘헬기사격을 하라’는 문서와 구두지시가 있었고, 탄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결론지은 것이다.

다. 오늘날 5·18 진상규명이 어렵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두 위원회가 자료를 조작·폐기했기 때문이므로 강제조사권을 가진 조직에 의해 대대적인 추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육·해·공 합동작전 처음 찾아내... 해상봉쇄도

이밖에 내란집단이 육·해·공 합동작전을 시도했다는 점도 처음 드러났다. 해군은 해병대 1개 대대를 광주출동에 대비하여 마산 경남대에 대기시켰고, (‘해병대 비군사작전 성공사례연구’ 참조) ‘광주사태에 따른 사후조치사항’ 문건에는 ‘...폭도들이 해상으로 탈출, 복귀에 잠입 동조하거나... 제2광주사태를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는 판단 하에 해군과 해경 합동 해상봉쇄작전으로 해상탈출을 방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보안사 자료에 나타나 있다.

공군은 특전여단과 20사단 병력 공중수송에서부터 진압봉 수송, 항공사진 지원업무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공군 참모총장은 광주공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광주시내 상공을 통과하도록 하는 전투지휘비 제 6호를 발령했다. 평소에는 항공기들이 광주시내를 우회하여 비행하였는데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위력시위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

자위권 발동은 공식적으로는 5월 21일 19시 30분에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무장을 위해 ‘진돗개 하나’가 앞당겨 발표된 사실도 찾아냈다. 즉 5월 20일 밤 22시 30분 광주역에서 3공수여단의 대대적인 발포가 있었다. 이를 알게 된 2군사령부는 23시 20분 발포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황영시가 주관한 계엄사령부 회의에서 오전 8시에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라고 실탄을 분배하였다. 결국 3공수의 불법발포를 합리화 하려고 5시간 먼저 무장을 시켰다.

이후 최세창 3공수 여단장은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까지 역임했고, 공수여단 대대장은 장군으로 승진하여 군의 역사를 관장하는 군사연구실장을 맡기도 했다. 내란집단이 5·18의 진상이 가리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주도면밀하게 은폐해왔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軍, 반성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 정훈교육을

특조위가 국방부에 제안한 것 가운데 특이한 것은 군의 정훈교육시간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재교육을 요구한 점이다. 군이 1980년 이후 5·18을 왜곡하여 교육하여왔으므로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로 다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작될 진상조사위원회가 정말 5·18 마지막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협조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 성황리에 개최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가 지난 3월 13일 저녁 7시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홀에서 13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개강식을 갖고 대강정을 시작해 3월 29일 대단원의 막이 내렸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시민강좌는 호남권역 기록문화유산의 원천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의 일환으로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인문적 재미와 감성을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호남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지평을 넓히고 기록문화유산과 인문학의 접목을 시도한 시민강좌로 시민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강좌는 제 1강좌 3월 13일(화), 전라도 천년, 지역민의 삶과 사상 그리고 자연(김화성 작가,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제 2강좌 3월 15일(목), 호남, 새로운 천년을 열자(문안식 동아시아역사문화연구소장) 제 3강좌 3월 20일(화), 호남 문화와 문학, 그 상징과 속살(최한선 전남도립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제 4강좌 3월 22일(목),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정창권 고려대 교수) 제 5강좌 3월 27일(화), 한국인의 뿌리, 족보 : 과거와 현재 미래(박홍갑 역사학자,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제 6강좌 3월 29일(목), 호남 서예가 열전(이동국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 등의 차례로 진행됐다.

광주 역사문화를 스토리텔링하다

『광주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홈페이지(누리집) 오픈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웹툰 50편·100개의 이야기·1000개의 역사문화자원 실어



우리 재단은 광주의 역사문화자원과 이야기들을 모은 '광주 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홈페이지(www.gjstory.or.kr)를 개설했다.

50여 편의 웹툰과 100개의 이야기, 1000개의 광주역사문화자원을 담고 있는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홈페이지는 광주의 어제와 오늘을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휴대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홈페이지는 광주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시민들의 삶과 삶터에 새겨진 이야기의 광맥을 찾아 가는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의 숨은 가치를 발견하고 시민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높이는 한편 창작의 원천소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로 후원으로 제작됐다.

웹툰은 • 지리(무등산, 부동교, 산동교, 뽕뽕다리 등 15편) • 문화유산(정지장군 갑옷, 칠석 고싸움놀이 등 14편) • 성씨인물(필문 이선제, 무돌길, 자미탄 등 12편) • 경제사회(임을 위한 행진곡, 어등산 한말의병 등 5편) • 종교복지(제중병원, 중심사 2편) • 생활문화(유서석록, 경양방죽의 전설 2편) 등 총 50편이 제작되어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한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광주의 역사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집적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광주 이야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웹툰, 영상,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콘텐츠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재단소식

재단, 전당장 5차 공모 무산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 표명 - (가칭)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제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 5차 공모도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데 대해 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는 전무하다고 판단하고 (가칭)조성사업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제안했다.

우리 재단은 문제부가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쳤으면서도 지역 여론을 핑계로 전당장 5차 공모를 무산시킨 것은 공모 무산의 책임을 지역으로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하며, 우유부단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문제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책사업에 걸맞는 조성위원회와 추진단의 위상 제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인력 확대, 7기 조성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전당장과 아시아문화원장의 조속한 공모를 요구했다. 동시에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광주시·광주시의회·시민사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 연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제2차 집행위원회 개최



우리 단체가 감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제2차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13일(화) 오전 11시에 윤상원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지역의 시민문화예술단체가 연대하여 준비하고 있는 (가칭)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상화 시민연대(준), 6·13지방선거 공동대응기구에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감사단체인 우리 단체가 준비주체로 참여키로 하였다. 한편 2018

년 비영리민간단체공익사업은 당초 신청금액에 비하여 선정 금액이 줄어든만큼 사업규모와 내용을 조정하되 협의회가 통합 운영, 회원단체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부신청서를 제출키로 하였다.

2018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감사단체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추천



2018년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1일(수) 17시 30분, 광주장애인문화협회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내드림, 지역문화교류재단, 얼썬, 광주장애인문화협회는 대표 단체, 오월어머니집과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는 감사단체로 선출하였으며 2018년 감사단체로 우리 재단이 추천되었다. 또한 2018년 주요 사업으로는 오는 6·13지방선거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협의회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광주문화도시협의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광주시 문화정책 감시와 정책 제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감시와 정책 제언 등을 통해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자 지역이 시민문화단체가 참여하여 지난 2007년에 만든 네트워크 단체이다.

• 조직

2018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2018년 제2차 정기 운영위원회가 지난 3월 19일(월) 18시 30분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신규 임원 환영모임과 병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상화 시민연대(준) 참여 건 (가칭) 6·13지방선거 공동대응 문화연대(준) 참여건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재단소식



두 모임은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역의 시민사회가 차이를 넘어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고, 지방선거 실시 이후 시민문화예술단체가 공동 대응을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재단이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문도협이 두 모임의 제안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신규 임원 환영 및 전체 임원 친목과 소통을 위하여 3월 24일(토)에 열리는 임원 봄 나들이에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운영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2018년도 제3차 재단 정기 임원회의 개최



2018년도 제 3차 재단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3월 8일(목) 17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연대모임 구성을 위한 TF모임, 6·13지방선거 공동 대응을 위한 시민문화예술단체 연석회의에 문도협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우리 재단이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오는 3월 24일(토) 개최되는 임원 봄나들이 사업이 많은 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의결단위 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들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임원 봄나들이 행사를 기

점으로 추진되는 2018년 회원확대사업도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 개최



2018년 제 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가 지난 2월 26일(월) 18시 30분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25명의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2017년 감사결과보고서 승인 건 재단 조직 개편 및 신규 임원 선임 건 •2018년 사업·조직·예산(추경) 승인 건을 안건으로 다루었다.

2017년 감사결과보고서는 승인하되 감사가 제안한 권고사항은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단 조직개편 및 신규 임원 선임 건, 2018년 사업·조직·예산(추경) 승인 건은 지난 2017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제안된 이후에 임원회의, 운영위원회, 후원이사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안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한편, 모임 이후에는 조출하게나마 이번에 조선대 부총장으로 취임한 김하림 교수의 축하모임도 식사와 병행하여 가졌다.

2018년도 제1차 후원회 이사회 개최

2018년 제 1차 후원회 이사회가 지난 2월 12일(월) 18시 30분에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성 후원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모임에서는 •2018 회원 및 조직사업 임원 봄나들이 개최 •후원 이사 추천 건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2018년 회원 및 조직 사업은 재단 임원 및 회원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하여 최소한 2회 이상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되, 특히 올해 개최되는 후원의 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후원 이사회의 활성화를

재단·회원소식



위하여 차기 회의전까지 최소한 5인 내외의 후원이사를 추천키로 하고, 재단 조직 개편 및 임원 추천이 마무리되면 이른 시일내에 신규 임원 환영 및 친목과 교류를 위한 임원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키로 하였다.

재단, 대만 역사문화탐방 다녀와



우리 재단은 지난 1월 24일(수)~27(일)까지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만 역사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대만 역사문화탐방은 일본의 식민 지배 경험 및 한국의 근현대사와 유사한 배경과 아픔을 지닌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된 행사로, 내실있는 프로그램과 현지 민주인사들과의 문화적 교류까지 병행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2018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연구소 기획위원회 신설

2018년도 제 1차 운영위원회 지난 1월 22일(월)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2018년 사업예산(안)은 지속사업 및 신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세부 추진계획과 내용을 좀 더 보완(운영위원, 임원회의 회람 전제)하여 2월 26일 열리는



2018년 제 1차 정기이사회 및 전체 임원 연석회의에 부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재단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위하여 연구소 기획(운영)위원회 신설과 운영위원회내의 각 위원회의 통합 운영, 전체 운영위원은 연구소 기획(운영)위원회와 재단 운영위원회로 편제키로 하였으며, 본인 동의를 전제로 연구소장은 이동순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는 안태기 부위원장을 추천하였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재단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우리 재단이 제안하여 추진했던 선거 대응 방침과 내용을 준용하여 민선 7기 지방선거에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대응키로 하였다.

[회원소식]

김하림 이사(조선대 교수), 조선대학교 부총장 임명

조선대학교는 지난 8일자로 외국어대학 김하림 교수(중국어문화학과·사진)를 부총장으로 자연과학대학 윤성명 교수(생명과학과)를 교무처장에 임명했다.

또한 3월 1일자로 법과대학 김종구 교수(법학과)를 법과대학장 겸 고시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에 부총장에 임명된 김하림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89년부터 조선대에서 재직 중이다. 그동안 대외협력처장, 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원장, 신문사주간, 교무처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쳐 부총장에 임명됐다. 윤성명 신임 교무처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조선

회원소식

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다. 생명과학연구소장, 산학협력단 해양생물 연구센터장, 교무부처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 〈전남일보〉 발췌

노성태 이사(국제고 수석교사), 나라사랑 유공자 광주시장 표창

— 노성태·신봉수·신동업씨 '나라사랑 유공자' '광주시장 표창, 교육대중화 등 후학양성 공로



3·1운동 제 99주년을 맞아 역사교육에 앞장서 온 노성태 수석교사, 신봉수 교사, 신동업 교수가 나라사랑 유공자로 선정, 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의 표창을 받았다. 노성태(59) 국제고 수석교사(역사)는 30년 동안 지역독립운동사 연구를 통한 역사 발굴, 강의로 후학양성과 역사교육에 앞장서 왔다.

노 수석교사는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과 발행에 맞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중·고교)개발 집필위원으로 활동하며 역사왜곡 및 편향을 온몸으로 막았다.

노 수석교사는 한말 의병활동에 주목, 양진여·양상기 부자 의병장을 발굴한데 이어 광주·전남의 숨겨진 지역사를 드러낸 『남도 의 기억을 걷다』, 『광주의 기억을 걷다』를 펴냈다.

그는 또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의 근·현대사 편향과 교과서 축소에 맞서 만주·연해주지역 독립운동사를 담은 『독립의 기억을 걷다』와 『사진과 인물로 본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발간, 역사 바로 세우기와 대중화에도 한몫했다.

노 수석교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경구처럼 역사는 단순한 암기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정기를 세우고 익히는 학습”이라면서 “앞으로도 역사 대중화와 후학 양성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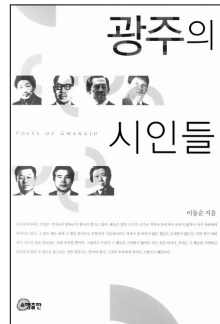
— 〈전남일보〉 발췌

이동순 이사(조선대 교수), 『광주의 시인들』 출간

— 김현승·김악·김태오·박흥·오화룡 등 소개

시문학사 빛낸 문호들 알리고 조명받지 못한 시인들도 규명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펴낸 『광주의 시인들』은 시인 이성부, 조태일, 김현승, 손광은, 김악, 김태오, 박흥, 오화룡 등 광주 출신 8명의 시인을 다뤘다. 이중 시인 오화룡은 처음 깊이 있게 다뤄져 관심을 끈다. 영광에서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시인 조운은 한국시조시단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이고 시문학파를 이끈 용아 박용철과 김영랑 또한 1930년대 문단의 중심에 있었다.



저자는 무엇보다 시문학사에서 이미 조명된 시인들 뿐 아니라 문학사 어디에도 규명되지 않은 시인들을 불러냈다.

저자가 처음 주목한 이는 근, 현대 광주·전남 최초의 현대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인 시인 김태오이다. 그는 광주의 민족운동 핵심에 있었던 아동문학가로 시인이자 학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1933년 동요집 『설강 동요집』을 출간했는데 이 동요집은 윤석중이 낸 2권의 동요집에 이어 한국아동문학사에서 3번째로 나온 동요집이다. 이 동요집에는 그가 소년운동과 함께 당시 여러 지면에 발표했던 동요 76편과 「동요작법」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이밖에 ‘무등산의 시인’ 이성부와 조태일, 등단 50년이 넘는 손광은의 문학적 활동을 중심으로 작품세계를 언급했다.

이동순 교수는 전남대에서 「조태일 시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움직이는 시와 상상력』, 『광주문학 100년』이 있으며 편저로 『조태일 전집』 등을 냈다.

— 〈무등일보〉 발췌

김향득 운영위원(사진작가), 사진전 ‘ㄱ+(기억더하기) ing’ 개최

‘5·18’과 ‘세월호’를 잇는 순례길은 기억에 기억을 더해가는 과정이었다. 그 길을 카메라로 응시한 김향득 작가는 기억의 조각들을 모두 사진 기록으로 남겼다.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인간 힘을 또한, 잊지 않으려는 작가의 인간힘이다.

매년 ‘5·18’과 ‘세월호’를 주제로 사진전을 열고 있는 김향득 사진작가가 3월 23일부터 한 달 여간 ‘순례길’을 주제로 한 사진전 ‘ㄱ+(기억더하기) ing’을 연다. 김 작가는 5·18사적지비와 구 전남도청 등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어왔는데, 여섯 번 째 개인전인

회원소식



이번 전시에선 순례길 사람들의 표정을 담아낼 예정이다. 김 작가가 찍은 사진 속에는 세월호 광주시민상주모임을 비롯해 5·18사적지 순례에 나선 시민들의 표정이 담겼다. 5·18유공자들과 세월호 시민상주가 함께 순례하는 사진도 있다. 광주 시내 곳곳에 자리한 5·18사적지를 순례하거나 팽목항 순례길에 동참하며 찍은 사진이다.

김 작가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팽목항 순례길에 거의 매번 참여해 왔다. 지난해부터 15회 정도 팽목항을 찾았다. 그에게 팽목항 순례는 자신의 기억에 또 다른 기억을 더해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5·18항쟁에 참여했던 김 작가에게 5·18과 세월호는 다른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5·18사적지 순례 해설을 요청해오는 시민이 있다면 기꺼이 동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 5·18과 세월호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주목한 결과물을 매년 전시하는 일은 올해로 여섯 번째. 그동안은 사비를 털어 직접 전시기획까지 도맡아 왔다. 그런데 올해는 5·18기록관에서 먼저 전시 제안을 해 와 개인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전시 큐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전시 기획도 착착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에는 30여 점의 사진이 선보일 예정이다.

- 〈광주드림〉 발췌

박요주 이사, 『살고 싶은 보성』 출판기념회

- 전 광주지방국세청 국장 보성군수 출마

6·13선거에서 보성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요주 전 광주지방국세청 국장이 3일 보성군 보성읍 문화예술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광주와 전남 서부권을 관할하는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를 맡고 있는 박 전 국장은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책 '언어의 귀향, 박요주가 희망을 말한다'를 통해 평소 자신의 행적 철학을 이야기한다.

박 전 국장은 "고향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는 일념으

로 군수 출마를 결심했다"며 "보성이 근무하고 싶고 다시 와보고 싶은 곳, 누구나 살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광주일고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전남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박요주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와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무등일보〉 발췌

강성욱 운영위원, 시의원 출마 밝혀

- "살맛나는 서구, 공정한 사회 위한 생활정치할 터"



강성욱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외협력실장(54)이 1일 광주광역시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출마를 선언했다. 강 실장은 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일정총괄본부장, 광주광역시 도시마케팅 전담기구인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실장, 문화관광체육부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

원으로 일하고 있다.

강성욱 실장은 출마의 변으로 "민주당은 금남로 촛불혁명과 대선 과정에서 광주시민과 더불어 가는 정당으로 변화를 했으며, 문재인정부 탄생 과정 중 표출된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민주당의 일꾼으로 광주공동체의 발전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적폐청산과 정치선진화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온 국민이 꿈꿔왔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대개혁, 한반도의 평화정착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국제도시마케팅 분야의 최 일선에서 일한 경험과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회계전문지식 및 광주광역시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시대 최고의 일꾼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광주경제의 성장, 살맛나는 서구, 공정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를 하고 싶다"며 광주광역시 서구 시의원 출마 의지를 다졌다.

- 〈프라임경제〉 발췌

회원소식

이이남 회원(미디어아티스트), 올해 해외 9개국서 미디어아트 알린다

- 2월 7일부터 보스니아 사라예보서 '감성생태' 전
영국·러시아·네덜란드·스위스 등 잇단 전시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전 참여 등 국내 활동도 활발



전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이 올해 멕시코, 런던, 오스트리아, 뉴욕 등 해외 9개국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이남 작가는 지난달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LA아트쇼에 '만화 병풍(Cartoon Folding Screen) LEDTV'를 출품해 큰 호응을 얻

은데 이어 2월 7일부터 11일까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감성생태'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콜레지움 아티스티쿰 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제34회 사라예보 겨울축제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대미술연구소 김옥렬 대표가 기획했으며 이 작가를 비롯해 김영진·서유희·유주희·윤현섭·조대원 등 6명의 한국작가가 참여한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아사천에 매화 꽃이 피었네 (Blooming ume flowers on Assa cloth)'를 출품했다.

이 작가는 보스니아 전시가 끝나는 대로 미국의 팜프링스아트 페어에 참여하고 뉴욕과 런던에서 잇따라 전시회를 연다.

3월에는 홍콩 아트페어에 작품을 출품할 예정이며 5월에는 컨텍스트 뉴욕 아트페어 참여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전시가 예정돼 있다. 또 멕시코를 비롯해 네덜란드 헤이그,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인전도 계획됐다.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2월 6일부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층에서 열리는 라트비아대사관 공동전 '동화의 숲속으로'에 작품을 출품했다. 또 2월 9일~25일까지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강원, THE STORY' 그룹전에도 참여한다.

특히 3월에는 대전 카이스트비전관 개관기념으로 개최되는 '백남준&이이남 개관 초청전'이 마련돼 있어 기대를 모은다. 같은 달에 부산소울아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고 4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아트부산에도 자신의 작품을 내건다.

또 오는 9월에는 창원조각비엔날레에서 미디어아트파사드를 선보인다.

이이남 작가는 "국내·외 전시에 잇따라 초청되면서 올 한해 분주

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면서 "한국의 미디어아트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이남 작가는 프랑스 시테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돼 향후 프랑스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남도일보> 발췌

김종률 회원(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전남대 경영대인상' 수상

- 정치·문화·지역경제 발전 기여...오늘 광주라마다호텔서 시상식
'2018 자랑스러운 전남대 경영대인상'에 이개호(경영·81년 졸) 국회의원, 김종률(경영·82년 졸)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정용기(회계·81년 졸) 전남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17일 전남대 경영대학동창회(회장 박헌택·영무건설 대표이사)에 따르면 매년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을 선정해 '자랑스러운 전남대 경영대인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개호·김종률·정용기 동문에게 영예가 돌아갔다. 김종률 사무처장은 광주시의 문화 시책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광주 문화 발전의 중장기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했으며, 광주 관내 11개 문화 기관의 공동사업 추진과 문화정책 개발 담론 제시 등을 통해 광주문화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광주문화발전 중장기 기본방향 2030' 수립에 기여했다.

한편, 시상식은 18일 오후 6시 20분 광주라마다호텔에서 전남대 경영대학 동창회 신년하례회와 함께 열린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남성숙 이사(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지역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광주시장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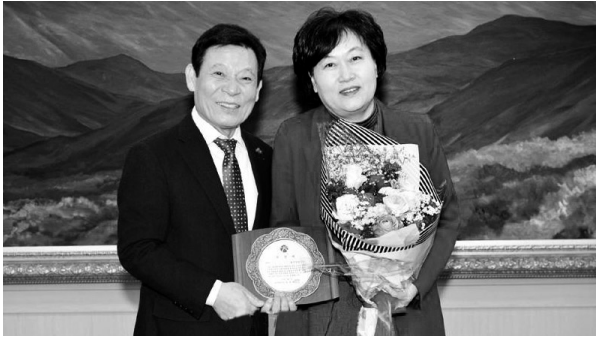
- 시민 자원봉사 인식 개선...나눔정신 확산 기여

광주매일신문이 광주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일 오전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공감회의에서 본보 남성숙 사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윤 시장은 이날 "헌신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나눔과 봉사를 확산해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위해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남 사장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본보는 그동안 광주시민들의 자원봉사인식을 개선하는 홍보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본보는 지난 한해 동안 시 자원봉사센터가 진행해 온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한 것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격려했다.

회원소식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시 자원봉사센터 주최로 열린 '자원봉사 500인 원탁토론'을 본보 보도는 물론 광주매일TV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해 자원봉사활동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같은 노력은 많은 성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남 사장이 한국사회봉사연합회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사회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진시영 운영위원(미디어아티스트) 미디어아트, 무용·음악·역사를 품다 - 융·복합 예술 퍼포먼스 '초월'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와 발레리나 출신의 안무가 조가영 씨는 몇 년 전부터 미디어 아트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공연을 진행해왔다. 2015년에 첫 작품 '써클'을 무대에 올린 데 이어 지난해에는 '뉴 폼' (NEW FORMS)을 통해 관객들을 만났다. '뉴 폼'은 호주 현대미술관에 초청돼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진시영·조가영씨가 함께 이번에는 버클리 음대에서 수학한 작곡가 허동혁이 함께 뭉쳐 융·복합 예술 퍼포먼스 '초월'을 선보인다. 28일 오후 8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한빛홀. 융·복합 공연은 제작비가 만만치 않고 단순한 장르간 결합에 그치기 쉬워 지속 공연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신작을 내놓는 건 의미있는 도전이다. '초월'은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문화관광재단, 한국전력공사의 후원을 받았다.

'초월'은 미디어아트·무용·음악·역사·전통예술이 빛의 언어를 통해 하나가 되는 가능성을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세계로 보여준다. 미디어아트와 전통예술, 무용, 음악, 입체음향 시스템,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융·복합예술프로젝트다.

- <광주일보> 발췌

차일헌 이사(빛고을문화포럼 회장), '사람사는 광주사진' 전

- 광주시립미술관에서... 현 시대 진솔한 모습 앵글에 담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광주 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건축물, 자연 등을 사진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빛고을문화포럼(회장 차일헌)과 공동주최로 '사람사는 광주사진'전을 20일부터 2월 5일까지 갖는다. 개막행사는 20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

'사람사는 광주사진'전은 빛고을문화포럼 회원들이 광주와 광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광주시민에게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 광주의 각종 행사와 축제를 사진매체로 선보이는 전시다.

또 사진을 통해 광주의 사람들, 건축물, 자연 등 광주의 모습과 그 안에 살고 있는 광주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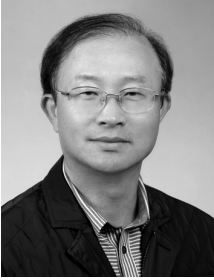
시민들의 일상 모습을 담은 사진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광주사람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다.

- <무등일보> 발췌

이승권 이사(조선대 교수), 한국프랑스학회장 취임

조선대 프랑스어과 이승권 교수가 2018년도 '한국프랑스학회' 회장에 취임해 1년간 학회를 이끈다. 한국프랑스학회는 문학과 어학이라는 전통적인 연구 분야 이외에도 예술적 역사, 정치와 경제 등 총체적인 의미의 '프랑스학' 정립에 필요한 토론과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회원소식



이 교수는 2018년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부회장에도 선임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교수는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프랑스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2년부터 조선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언어교육원장 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 대학원 문화학과 주임을 맡고 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이민원 재단 이사(광주대 교수),

— 지역발전위원회, 혁신도시특위 구성 위원장에 위촉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위원회 산하 혁신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혁신도시특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성

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위원장은 이민원 광주대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가 맡았으며, 각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10명의 민간위원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송재호 위원장은 "혁신도시 특위를 통해 정책현장의 전문성을 투영한 보다 진보한 정책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강동완 이사(조선대학교 총장), 대한치과의사협회 2017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

— 대학의 새 가치 모색하는 '치과의사 총장'

국제화, 사회적 가치 방점 찍고 구조개혁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2017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을 공동 선정했다.

강동완 총장은 지난 9월 조선대학교 총장 선거에 당선돼 대학의 구조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융복합 교육·연구 대학의 기치를 걸고, 치매 국책사업 수주, 권역 감염병 구축사업 구현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을 크게 올렸다. 학문교류 차원에서 중국의 공자학원, 베트남 학당 등을 학내에 개설하고, 인도네시아와 함께 치의학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강 총장은 조선치대병원장과 치과대학장을 지냈으며,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실무위원, 광주-대구 세계치과산업벨트추진기획위원장, 대한스포츠치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학계, 관계를 넘나들며 활동해 왔다. 지난 2010년에는 사회·봉사부문에서 '자랑스런 조대인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KNS뉴스통신〉 발췌

양혜령 이사(동구 치과의사회 회장), 동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양혜령(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동구 학동 선거사무소에서 당원과 주민,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13지방선거의 필승을 다짐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측은 최근 언론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양 예비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견고한 지지층을 한층 결집하고, 표심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을 끌어 모으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내외뉴스통신〉 발췌

백수인 재단 이사장(조선대 교수), 광주문인협회 제30회 광주문학상 수상

광주문인협회(회장 임원식)는 제 30회 광주문학상 수상자로 백수인 시인, 오승준 시인, 임인택 수필가 그리고 올해의 작품상으로 조민희 시조시인을 선정했다.

백수인 시인은 시집 『바람을 전송하다』에서 탁월한 서정성을 바



함께하는 사람들



탕으로 시간적으로 '서정'에 대한 편협한 인식을 벗어던지는 탁월하고 철저한 존재론을 형성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KT타워 4층에서 열린다.

— 〈광주매일신문〉 발췌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백수인 이사장(조선대 교수), 광주문인협회 제30회 광주문학상 수상
- 남성숙 이사(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지역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광주시장 표창
- 강동완 이사(조선대 총장), 2017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
- 김종률 회원(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전남대 경영대인상 수상
- 이민원 이사(광주대 교수), 혁신도시특별위원장 선임
- 이승권 이사(조선대 교수), 한국프랑스학회 회장 취임
- 박요주 이사(세무사), 『살고 싶은 보성』 출간
- 이동순 이사(조선대 교수), 『광주의 시인들』 출간
- 김하림 이사(조선대 교수), 조선대학교 부총장 임명
- 전현애 부이사장, 5월어머니집 관장 선임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양혜령이사 모친상
- 박선정위원장 부친상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구용기(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 김종률(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 박병주(진도북춤)놀이보존회 내드름 대표)
- 정규수(공무원)
- 주정민(전남대 교수)
- 임승호(농촌컨설턴트)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김 성 전 국회의원장 비서실장

김정희 재단 편집위원장, 시인

정광민 건축사무소 서로 대표

정현애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 사〉

강동완 조선대 총장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하림 조선대 부총장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박선정 남구관광청장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선현주 (주)선앤김메디팜 대표이사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양혜령 치과의사

오견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수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감 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차일현 세무사

함께하는 사람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선정 남구관광청장

〈부운영위원장〉

박흥근 포유건축사무소 대표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운영위원〉

강성욱 전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사무처장

강혜경 광산구 문화콘텐츠 전문위원, 소촌아트팩토리 센타장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봉석 조선대 교수, 소소미술관장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열쑤 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김혜영 (사)광주관광발전연구소 이사장

박신영 소설가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윤현석 (주)컬처네트워크 대표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 CS 대표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주 홍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재단 연구실장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김 성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부회장〉

오형근 일곡양지요양병원 대표원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이사

김경옥 약사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옥렬 다큐디자인 대표

김용혁 (주)H이 대표이사

이성일 전 호남매일신문 사장

정병수 남부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천형욱 변호사

황재익 오시메딕 대표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정희 시인

〈편집위원〉

김향득 사진작가

박신영 소설가

서연정 시인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원중 연구실장

김민정 사업팀장(육아휴직)

이지은 총무간사

최진실 청년인턴